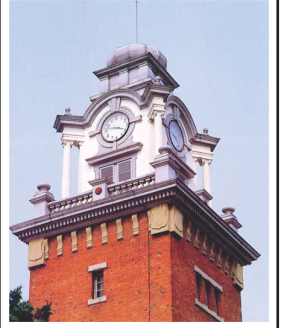




時計塔 SIGETOP



2026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53권 2호

2150 Wise Street #4227, Charlottesville, VA 22905
Tel: (516) 365-5500

발행인: 南明鎬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盧英一 徐亮 羅斗變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snuclma@yahoo.com

www.snuclmaaus.org



회장 인사 서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의대 동문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동창회 회장 남명호입니다.
어느덧 2026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저의 회장 임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창회 여러 활동들이 바쁘게 진행되었고, 여러 임원진과 동문님들의 도움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창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보면서, 운영 및 재정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문님들의 고령화 등 여러 이유로 회비와 일반 기부금(General)만으로는 사실상 운영과 시계탑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매년 약 2만 달러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회비를 20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장학금으로 기부해주신 금액 중 일부(최대 20%)를 동창회 운영 및 행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동창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무국 차원에서도 여러 비용 절감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편리한 납부를 위해 Zelle를 통한 회비 및 기부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특히 젊은 동문님들의 참여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고무적인 좋은 소식을 공유합니다 - 고 박세준(64) 선배님의 가족분들께서 큰 뜻을 모아 20만 달러 규모의 주식 기부를 결정하셔서, 4월 15일 직후에 주식 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세준 Memorial Fund(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학기금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데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차재철(68) 선배님, 조영 사모님(故 조세진(71)선배님 배우자) 그리고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동문님들과 사모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합춘대상을 수상하신 시카고의 박종희(75) 동문님께서 상금을 우리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와 세종 문화재단에 반반씩 기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계탑을 통해 보실 것처럼, 여러 집행부의 노력으로 서울의대와의 협력 연구 사업 및 SNUCMAA 연구기금 사업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학사업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시계탑에 실린 내용들을 참조해 주십시오.

장학기부금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더라도 장학사업의 본래 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창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선배님들께서 차기 동창회장직을 자진, 타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남명호 드림

Executive Council Meeting Report

Executive Council은 2026년 2월 22일(일)과 4월 8일(수) 두 차례 화상회의(zoom meeting)를 가졌습니다. 화상회의 전후로도 이메일을 통하여 활발하게 안건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화상회의에서는 동창회 재정 위기 상황 공유 및 타개책 마련, 회원들의 주요 기부 상황 공유, 연구기금(Research Grant) 사업 진행 공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함께 지혜를 모아 마련한 방안은 2026년 4월 11일(토) 2차 이사회/대의원회 회장 보고 등을 중심으로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호에 실린 이사회/대의원회 보고 내용을 꼭 읽어봐 주십시오 - 많은 젊은 동문들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고 하실것입니다.

Executive Council은 재정 위기와 차기 회장 추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통해 건실한 동창회 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Zelle를 통한 회비 및 기부금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Zelle ID는 snuclma@yahoo.com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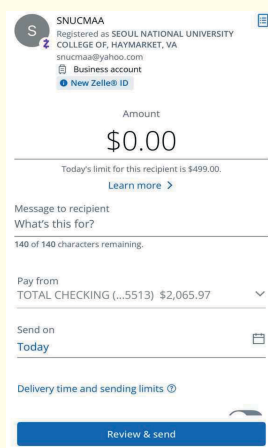
Zelle의 메모로 성함과 졸업년도를 남겨주시고 아래의(QR코드) 혹은

<http://forms.gle/VQ7rWGus2mubXSABa3o>로 회비 및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주시고.

상세 회비 및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회비 및 일반기부금(general)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R 코드(회비납부내역 작성)



Zelle 입력 화면 예시

2026년 제2차 이사회 및 대의원회 초록



2026년 4월 11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Zoom 화상회의

참가자(총 19명):

이만택(58) 박승균(61) 김한중(62) 최영자(66) 서윤석(68) 이건일(68) 주광국(68) 박수웅(69) 김일영(71) 서인석(73) 한승신(76) 남명호(81) 김자성(85) 강민중(91) 허원재(02) 박혜성(06) 이익재(08) John Baek(Fund Manager) 광귀병(사무장) Proxy:

김태웅(63) 한기현(63) 권정덕(64) 최준희(64) 김병오(69, VA) 김창남(69) 서량(69) 강유구(71) 조병선(71) 이계석(73) 권오기(78) 김원정(75) 전경배(75) 서귀숙(84) 박은경(00) 장세권(01) 송경민(09)

1. 2026년 4월 11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에 Zoom 화상회의로 제2차 이사회 겸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의 표결수는 49표로 정족수 37표를 초과하여 개회가 성립되었다.

2. 참가자 전원의 소개가 있었다.

3.故 이원택(71) 이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지난 회의 초록(2026년 1월 10일 1차 대의원회)을 낭독하고 참가자 전원의 확인 및 동의가 이루어졌다.

5. 회장 안건 및 보고(Presidential Agenda):

① 운영위원회(Executive Council) 임원 변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임원 구성은 홈페이지(snuclmaaus.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 현재 회비 및 일반(General) 기부금 감소로 인해 매해 20,000달러 정도의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 공유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회비 인상(125달러 -> 200달러), 장학금 기부액 중 기부자의 동의를 전제로 20%까지 일반 운영비로 전환, Zelle를 통한 회비 납부 방식 도입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아 통과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면의 회장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故 박세준(64) 동문의 유가족이 200,000 달러의 주식을 동창회에 기부할 계획임이 공유되었다. 유가족에게 기금명은 "박세준 Memorial Primary Care Fund"로 제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주식 기부 시점에 맞춰 정교화할 예정이다. 해당 기금 조성을 통해 주식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④ 미주 동창회에서 추천한 박종희(75) 동문의 합춘대상 수상 소식이 보고되었다.

⑤ 차기 회장 추대가 어려운 상황이 공유되었다. 현 회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차기 회장이 추대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Executive Council)를 통한 임시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임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아 통과되었다. 졸업연도와 상관없이 열의를 가진 분이 회장으로 추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6. Treasurer Report(84 서귀숙, 사무장 대리 보고):

2026년 1월 6일에서 2026년 4월 9일까지의 동창회 회비 및 기부금 입금 내역, 사무실 지출, 시계탑 발간, 장학금 지출 등 출금 내역과 함께 현재 잔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Zelle를 통한 회비 및 기부금 납부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7. By-Laws committee report(73 서인석, 76 한승신):

특별한 보고 사항은 없었다. 현재 동창회 운영 상황과 맞지 않는 회칙(By-laws) 내용에 대한 점검 요청이 있었다.

8. Finance committee report(71 김성환): 특별한 보고 사항 없음.

9. Fund Raising committee(76 최광휘): 특별한 보고 사항 없음.

10.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John Baek):

① 현재까지의 2026년 수익률은 paid dividends를 포함하여 YTD +1.8%이다. 2026년 이후 계속되는 uncertainty over Tariff policy와 전쟁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②투자금액 중 채투자되지 않고, INPOINT + CIM에서 매달 은행으로 올해 받은 금액은 현재 \$285+\$320= \$605이다.

③ AXA Lifetime payment- 올해 받은금액 포함하여 현재까지 받는 총금액은 매년 \$22,813이고, 그동안 \$193,912(\$5,703 .30x 34 quarters)이다.

④ 12/2024에 투자한 Allianz Stock Index \$36,000은 현재 \$41,134이다.

⑤ 10/2024에 Bank CD로 투자한 \$100,000과 2025년 10월 추가투자 \$50,000은 현재 합계 \$156,317이다.

11. Scholarship committee report(08 이익재):

① 2025-2026 미주 교포 장학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13명의 장학금 수혜 학생들 모두 사진 첨부하여 유례없는 성의를 보여준 보고서를 보내주었다. 향후 장학생들이 동창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이루어졌다.

② 장영희 사모(故 장세권(63) 동문 부인)와 Richard Chin(진흥우(62) 동문)님께

/ 동 / 문 / 및 / 지 / 부 / 소 / 식 /

박종희(75, 시카고) 동문은 2026년 3월 17일 서울의대 동창회 (회장 한규섭) 제 70차 정기총회에서 함춘대상을 수여받았다. 박 동문은 일리노이대학 소아과 교수로 재직하며 소아 알레르기, 천식 분야에서 임상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였으며 2004년 세종문화회를 창립하고 사무총장을 맡아 미국 사회는 물론 세계에 한국 음악과 문학을 알리고 확산시키는데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세계 시조의 날을 제정하고 “시조”라는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김윤태(69, 시카고) 동문은 강정희(고 강수상 53, 동문의 부인) 씨 후임으로 시카고 한인 문화원 이사장으로 부임하였다. 시카고 한인 문화원은 2011년 장기남(문리대 62학번) 초대 회장과 강영희(강창만 64, 동문 부인) 초대 이사장의 노고로 개관되었으며 김사직(상대 59학번), 이승자(사대 60학번)에 이어 김윤태 동문이 회장직을 맡아왔다. 그간 끊임없는 발전을 해 왔으며 여러 가지 문화행사 전시 등을 하였다. 특히 김윤태 회장 재임 시 5년에 걸친 모금과 노력 끝에 2024년 9월 4일 5년 만에 대망의 4.2백만 달러 BISCO Hall을 개관하였다. BISCO Hall은 공연장 사용 시 400석, 연회장 사용 시 250석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개관 후 100개 이상의 문화행사와 공연 대역을 유치하였다. 무대 전면의 초대형 LED로 공연의 질을 높이고 뒷마당에는 새 단장을 마친 부산정, 꽃담, 협문이 위치하며 ‘마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앞마당 공간에서는 전통놀이, 전통결혼식,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특유의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병순(68, 미시간) 동문의 딸 Young Huh는 “A MOOD, A THOUGHT, A FEELING INTERIORS”라는 인테리어 디자인 책을 출판하였다. Young Huh는 Smith College를 거쳐 Fordham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천부적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더 공부를 하여 뉴욕에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다. 그 후 수많은 유명한 상들을 받았으며 명성 있는 우수한 전문잡지, 신문 등에 소개되었고 전문기관 단체에서 활약하는 등 그 분야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시카고 지부 소식 보고: 노영일(68)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부 소식

새 봄을 기념하여 캘리포니아 산호세/마운틴뷰/팔로알토 지역에서 최근에 서로 알게 된 동문들 - 차재철(68 졸업, 병리학), 박은경(00 졸업, 핵의학), 안상민(02 졸업, 재활의학 및 통증의학), 흥은경(14 졸업, 영상의학) 동문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3월 14일에 있었던 첫 만남에서부터 서먹함 없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고 손타트를 그리며 기념 촬영을 하였고(사진 참조), 여세를 몰아 바로 일주일 후에 가족들도 동반하여 또 만나 동문애를 불태웠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9일에 열릴 예정인 차재철 선배님의 손자인 Spencer Cha의 피아노 리사이틀 때 있을 예정입니다. 차 선배님 덕분에 연결된 북가주 지역에 계신 61년도부터 73년 사이에 졸업하신 십여분의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곧 계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임 비용 찬조를 비롯하여 젊은 동문들의 단합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미주의대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 기사 작성: 박은경 동문(00졸업)



<전면에서 계속> 서 각각 기부하신 10,000달러는 향후 2년간 서울의대 학생 중 미주 실습 장학생을 선발하는 Green Project 장학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③ 현재 장학금 기부액의 20%까지 일반 운영비로의 전용을 요청드리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장학 기금 축적은 좀 더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부자 분들께 장기적인 비전과 향후 장학생 초청이라는 명분에 대한 설득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학 기금 조성은 투자 계좌 설립과 운용이 중요하므로 재무 및 투자 담당 선생님들과의 긴밀한 협力が 이루어질 예정이다.

12. Research & Fellowship report(06 박혜성):

① SNUCMAA Research Grant (한승신 연구기금): 현재 예비 접수가 마감되었고, 4월 30일 최종 연구 계획서 접수, 6월 30일 심사 완료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② SNUCOM-SNUCMAA Research Grant (서울의대-미주동창회 국제 연구기금):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2일 윤순호/곽낙원 팀의 “AI-based Segmentation and Quantification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Pulmonary Disease Lesions on Chest CT”가 최종 선정되었다. 합격자 통보와 연구비 지급을 위한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서울의대 측에 전달할 의견이 이사회/대의원회 안으로 공식 의결되었다.

③ SNUCMAA Collaboration Grant(서울의대 동창회 협력기금): 서울의대총동창회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설립되지 못 하여 추후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다음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편집위원회 활동이 평상시와 같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동창회 우편 주소 변동, 연회비 인상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시계탑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시니어 회원분들과 사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14. Charity report(66 최영자): St. Jude Hospital에 \$5,000 기부 완료 및 영수증 수령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15. Website report(68 주광국): 특별한 보고 사항은 없음.

16. Nominating committee report(75 전경배): 특별한 보고 사항은 없음.

17. Advisory committee report(58 이만택 보고): 특별한 보고 사항은 없음.

18. Green Project report(02 허원제):

그간 이루어진 다양한 동문 모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현재 5회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지원 받은 예산 5,000 달러 중 3,925.91달러를 지출한 상황이다.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 김현학(63): 애틀랜타 조지아주에서 1월 30일 별세하셨습니다.
- 박견(65): 남가주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시던 중 1월 29일 별세하셨습니다.
- 박수안(65): 뉴저지에 거주하시다 3월 21일 별세하셨습니다.
- 구경희(65): 지난 3월 12일 시카고에서 별세하셨습니다.
- 신규호(68): 조지아 애틀랜타에 거주하시다 4월 18일 별세하셨습니다. 신 동문은 지난 10년간 학술대회에서 CME Credit를 해결하신 바 있습니다.
- 이원택(71): 남가주에서 4월 3일 별세하셨습니다.
- 이애순(고 이희경 61, 전 회장 부인) 여사께서 지난 2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 김대중(76): 남가주에서 1월 20일 선종하셨습니다.

고 이원택 님을 보내면서



4월 3일 Dr. 이원택(71)이 우리 곁을 떠났다. 떠나기 하루전, LA 동기부부 여러명과 아쉬운 만남 후 다음날 아침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일 년 전 혈관수술 후 발생한 뇌졸중이 곧 회복하는 듯 했으나 지난 6개월 동안 서서히 의식이 나빠지는 상황에도 모든 사전 준비를 해 놓았다. 그는 딸, 미영과 오랜 동반자 한나를 두고 떠나면서 자신이 화장 후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 묘소 옆에 묻히길 원하며 이름만 새긴 작은 비문이면 된다 하였다.

의대 졸업후 1975년 도미하여 디트로이트에서 1년 인턴 한 후 오하이오 의대에서 정신과 수료하였다. 남가주에 정착해서는 노인정신과 수료하고 전문의로 오랜기간 Long Beach에 개업하며 많은 현지인과 한국인들을 도왔다.

또한 그는 의사로서 보기도분 훌륭한 문인이었다. 1947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우리 세대에는 아주 드문 경우로 천자문을 배우다 서울 미동 국민학교로 전학, 경북 중 고교 졸업 후 원하는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였으며 그는 이미 학창시절에도 글쓰기에 아주 능했다.

어린 시절 시골서 자라서인지 그는 자연을 사랑하고 수목을 키우는 해박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다. LA Habra Heights에 큰 과수원이 달린 집과 Big Bear산 속의 별장을 오래동안 잘 가꾸며 많은 지인들을 초대하며 즐겼다.

나와의 인연은 의대를 졸업한 후 우연히 서울시내 버스에서 만나 서대문 근처에서 도미에 관해, 결혼 문제, 미국에서 진로 문제 등 막연한 것들을 의논 하였다. 그후 디트로이트에서 만남과 남가주에서 50년 이상 한지역에 살며 많은 의대동기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했다.

그의 문학창작 활동은 어마어마했다. 낮에는 개업의사로 밤에는 문인으로 헌신하며 2005년에서 2018년까지 그는 6권의 serial 수필집을 냈으며 미주의대 동문지인 시계탑에도 큰 공헌을 했다. 17년이상 기고를 했고 2015-2016년을 편집장으로 헌신했다. 2014년부터는 한국문단에서도 수필가, 번역문화가, 문학평론가, 시인으로 활동하며 팬문학과 재미시인상을 받았으며 이후 이사장으로 활동하였다.

2021년부터 2024년에는 변형, 원형, 지구촌, 이원택 영(미)한사전을 완성하여 언어사전 학자가 되었다. 나는 그를 생각할때마다 러시아 의사이며 작가인 Anton Chekhov(1860-1904)를 연상하게 된다. 그는 돈이 없어 글을 써서 돈을 모아 의과대학을 갈수 있었다 한다. 수 많은 단편소설을 썼으며 힘들게 살다 44세에 결핵으로 죽은 문인의사이다. Chekhov는 의학은 나의 부인이고 문학은 나의 정부라고 했다는데 원택이도 그리 생각했을까?

시골 출신으로 정신과 의사이자 문인으로 성장하며 명성을 얻어도 항상 겸손하게 살고 싶다 하였다. 2025년 11호 월간중앙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업적이 많이 보고된 바 있다. 그는 방대한 양의 저서를 혼자 힘으로 자신의 돈을 쓰며 analog 방식으로 모든 책을 출간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출간한 영(미)한 사전은 1236 페이지에 2.5kg의 대서이다. 밤잠을 줄여가며 상상할 수 없는 지구력과 희생으로 완성하였으나 판매와 저작권 수입은 거의 없는것으로 안다.

나에게 이원택은 천재이다. 나는 그의 변형 영(미)한사전을 애용하며 그의 순수함, 멋진 미소와 제스처, 알아듣기 힘든 조크와 심오한 철학같은 그의 언어들을 이젠 다시 볼수없으나 기억 속에 생생하다. - 박진국(71, 남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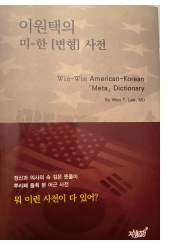
이원택(71) 동문님을 보내면서



지난 4월 3일 이원택 후배님이 타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교수는 2014-2016년에 우리 동창회 시계탑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그 후에도 수필과 시 작품을 계속적으로 기고해왔으며 국내외로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동문이었다.

한 예로 그가 2021년 발간한 1236 페이지의 이원택의 미-한(변형) 사전은 대단히 창의적인 저서로 실생활에 유익한 참고 문헌이다. 이것은 그의 생업인 정신과 의사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이퇴계의 후손이어서 그런지 특이한 두뇌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한동안 재미 한인시인협회의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또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만화경, 요지경 등 7권의 신비스러운 저서를 발간한 천재적인 문필가이다. 이제 비록 그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명성과 저서, 작품들은 후세에 남아서 읽힐 것이다. 왕성하게 활동 중인 때에 갑자기 타계하였다니 놀랍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사진은 2016년 6월 함춘공로상 수상 당시 왼쪽부터 강대희 학장, 서윤석 미주동창회장, 이선희 편집위원, 이원택 편집장, 허선행 편집위원, 김병석 전 편집장, 서인석 미주동창회 전회장 -글: 편집장 서윤석





친구 구경회를 보내며

한재은(65, 시카고)

자네가 떠나기 수일 전, 내게 전화하여 "내일 퇴원하여 hospice care를 받으며 내 몸이 가는 데로 가기로 했네. 내 나이 87세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여한 없이 살았네. 오랫동안 좋은 친구 해 주어 고마웠어. 행여나 너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으면 미안하이.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바라네. 나는 가서 부모님, 먼저 간 친구들, 친지들을 만날 걸세..."라고 얘기했지. 참으로 자네다운 삶에 대한 태도였네.

함께 의과대학 6년, 각자 해군, 육군 군 의관으로 헤어졌다가, 도미하여 다시 만난 것이 보스톤에서였지 자네는 Boston VA hospital에서 pulmonology fellow, 나는 Beth Israel Hospital에서 OB-GYN resident로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가끔은 주말에 Jamaica Pond Park에 가서 가족과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네. 그 후, 나는 동기 임현재가 open heart surgery team으로 있었던

시카고 근처 Elgin, Illinois(2차대전 말 까지 시계 생산으로 유명)에서 개업을 시작하였고, 자네는 2년 후인 1975년 fellowship을 마치고, 우리 Elgin의 같은 병원(Sherman Hospital, St. Joseph Hospital)에서 개업을 시작하여 우리 우정이 다시 깊어졌지. 자네는 이들 병원에 와서 pulmonary lab을 신설하여 open heart surgery program에 크게 공헌하였지. 시카고 근교엔 거의 35년간, 시기에 따라 다섯 내지 여섯 명의 동기동창(김길중, 이광선, 임현재, 권오연, 구경회 그리고 한재은)이 있어 즐거운 일, 궂은 일을 함께 했지. 맥주나 와인 한 잔이 고작인 자네의 주량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네는 'perfect designated driver'였지: 고마우이 (현재도 인정할 걸세)! 또한 자네는 일단 약속을 하면 크건, 작건, 'as good as a signed contract'와 같았지. 성공적인 의사로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활발히 하여 자네가 이제 고인이 되신 대선배님, Thomas Kim(47년 졸업)과 함께 설립한 Hanul Senior Center는 현재 \$10 million 규모의 노인 봉사를 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 대단하지 않은가?

경회, You have finished your race, you have taken what your body gave you and turned it into a master piece of service and friendship. Farewell my friend, you will be missed and remembered until we meet again.

결국 성공한 것 아니겠소. 가장으로 집안 일에만 자상한 줄 알았더니 어느 해였던가 학장의 신분으로 여기 남가주 연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하곤 갑자기 취소하지 않았겠소. 서울 대학교 총장 선거가 교수들의 직선제여서 꼭 참석하여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면서... 그렇게도 직무에도 빈틈이 없던 자네.

어쩌다 한국에 나가면 자네와 일찍 故人이 된 지재근 교수와 함께 의대 기초 건물 옆 골목 안에 있는 조선 기와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던 생각도 나고.

해마다 있는 함춘 미술전에 소인의 조각이나 서예 작품을 출품하면 잊지 않고 관람하여 주고 꼭 소견을 한마디라도 하여주던 당신. 이젠 그래줄 사람도 없소. 부디 안부나 가끔 전합시다. 그쪽은 이쪽보다 모든 것 너무 앞서 있어서, 통신 방식도 스마트폰, 인터넷, Wi-Fi도 필요 없는 아마도 '꿈, Dream'이란 통신 수단을 쓰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소 꿈이라도 소식 주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꼭.

이순형 교수의冥福을 빌며

손영진(62, 남가주)

결국 먼저 떠났구려 학장님.

2024년 6월 4일, 서울 용수산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 되리라는 생각이나 하였겠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 2026년 3월 22일 작고하셨다는 소식을 접하니 생각이 더욱 나는군요.

언젠가 우리는 임상실습 때면 점심 식사 겸 함춘원 잔디밭에서 쉬고 있는데 당신은 정장에 빨간 타이를 하고 신촌 어느 여의대에서 강의를 하고 오신다고, 우리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 자네는 가르치고 온다니.

내가 보스톤에 있을 때 자네가 반갑게도 들려주었지. 그때 떠나며 보스톤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처남 걱정을 어떻게나 많이 하는지. 그 처남도 자기 생각대로

고 구경회 동문 자제의 조사

Dr. Kyung W. Koo, age 86, passed away on March 12, 2026 peacefully at his home in Elgin, IL. He was born on March 16, 1939, in Seoul, Korea, a son of the late Bum Suer and Byung Soon Koo.

Dr. Koo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eading school in his country, with a premedical degree in 1961 and medical degree in 1965. He served in the Korean Navy for three years. He then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68 to complete his residency at Illinois Masonic Medical Center and fellowship at the Boston V.A. Hospital. He practiced internal medicine at Elgin Internal Medical Associates for 32 years caring for patients at Sherman Hospital and St. Joseph Hospital in Elgin, IL where he started its pulmonary unit. He tirelessly served his patients with brilliance and compassion and was honored as a Lifetime Trustee at Sherman Hospital.

He is survived by his loving wife Anne of 61 years, by his three sons Peter, Michael (Grace) and David (Lesly), four beautiful grandchildren Maddie, Vivie, Nathan and Briana and his sister Yoon Ja and numerous nephews and nieces. In addition to his parents, he was preceded in death by his sister Yoon Mi. He provided every opportunity to his family and found joy and pride in witnessing their lives. His dedication to his family extended to sponsoring relatives who now call the U.S. home. In his commitment to help others in need, he co-founded the Korean American Senior Center in 1987 which today is named Hanul Family Alliance and remains the largest social service agency serv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greater Chicagoland. His passion to support extended to Sejong Cultural Society and his church St. Thomas More.

He was an avid golfer, playing baduk (Korean board game) with friends, gardening and loved singing while playing the piano at home and travelled the world with his wife and friends. He and Anne sang for many years with Korean retiree friends at their glee club. His closest friends were his high school and university alumni who shared a similar journey to make a life for their families in the U.S.

He will be greatly missed and forever remembered. A memorial service celebrating and honoring his life will be held on March 15th, 2026 from 9am-12pm at Laird Funeral Home at 310 S. State St., Elgin, IL. In lieu of flowers, kindly make donations to Hanul Family Alliance at <http://www.hanulusa.org/donate> or Zelle to donation@hanulusa.org

구경회 선배님을 기리며

후배 조 중 행 (69, 시카고)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지난 40년간 이 지역의 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며 구 선생님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때로는 후배 의사로, 때로는 서로 전문적 자문을 구하는 동료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친구로 그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와 예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선후배 사이로 구경회 선생님이 저보다 4년 선배이시지만, 우리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맺어진 것은 제가 1980년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환자 진료와 병원 내의 여러 업무들, 슈퍼볼 파티와 골프 라운딩, 그리고 많은 긴 대화들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그 갈피마다 새겨진 기억들이 마치 오래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제가 최근 몇 년 한국의 모교 병원에서 진료와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후로는 가끔 점심 식사를 하며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배님의 기력이 조금씩 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골프와 정원 가꾸기, 여행, 그리고 활동적인 삶이 주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흔히 그러하듯, 지난 몇 년은 구 선생님에게도 참으로 고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몇 주 동안 병원을 오가며 구 선배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 시절의 추억들, 셔먼 병원과 성 조셉 병원에서의 일들, 의료계 동료들과 동창생들 이야기, 그리고 시카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한울 종합 복지관 설치 과정을 비롯한 한인 사회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는 직접 전하지 못한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작별 인사와 축복을 전해달라고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평안 속에 안식하고 계심을 믿으며, 저는 선배의 따듯함을 깊이 그리워할 것입니다.

구 선생님이 이 1970년대 초-중반, 사모님 및 세 아들과 함께 이곳에 처음 자리 잡으셨을 때, 아마도 시카고 Lutheran General H. 서부 지역에서 유일한 폐질환 및 중환자학 전문의였을 것입니다. 그 시절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매일 아침 중환자실(ICU)에 들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구 선생님은 이미 중환자실 환자들을 살피고 외래 진료소로 향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환자의 차트마다 남겨진 선배의 필적은 완벽한 필기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며 그렇게 교과서처럼 우아하고 정갈한 글씨를 본 적은 드물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시절을 미국 의료의 '낭만 시대(Romantic Period)'라고 회상하곤 합니다. 전자 의무 기록도, 끝없는 보험사의 알고리즘도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AI가 만들어낸 응답 서비스(answering service)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사와 간호사, 환자, 가족 그리고 정성 어린 의사들의 의무 기록만이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행(苦海)과 같습니다. 선배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동안의 삶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고(苦)나 스콧 펙(Scott Peck MD, The Road Less Travelled)가 그의 저서에서 말했듯, "인생은 고단하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문제를 다루는 법을 차차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살아오며 화도 내고 적잖이 투덜대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구 선배가 화를 내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온화한 미소만이 기억날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게 구경회 선배님은 인내와 겸손, 조용한 헌신과 친절, 그리고 정직함을 두루 갖춘,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의사의 표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같은 명문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라 할지라도, 낮은 미국 땅에 정착한 이민자 의사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길이었습니. 그러나 우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가르침을 이정표 삼아 걸어왔습니다. 男兒 到處是故鄉 幾人長在 客愁中 사나이가 가는 곳은 어디든 고향이거늘, 어찌 나그네의 시름 속에 머물러 있겠는가?

구경회 선배는 바로 그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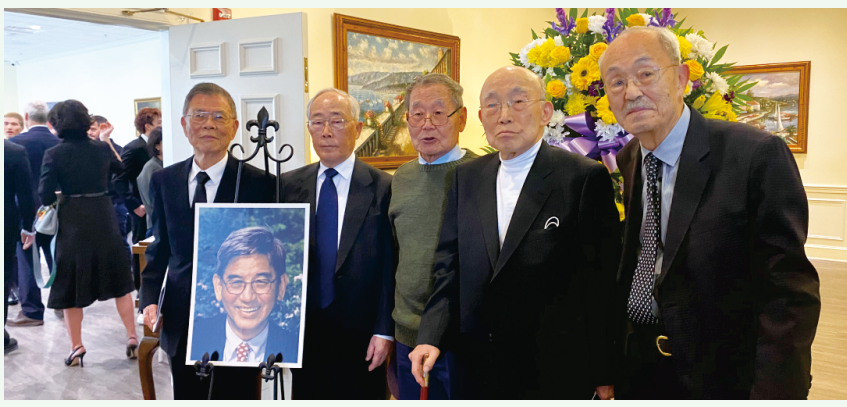
골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엘진 컨트리클럽의 멤버로 오랫동안 함께 하며 우리는 골프 역시 인생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 9번 홀은 약 130야드의 짧은 파3 홀이지만, 그린이 무척 빠르고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 티 박스 옆에는 선배의 '홀인원'을 기념하며 성함이 새겨진 벤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그 벤치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더군요.

하지만 이번 여름,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에 저는 다시 그 코스를 찾으려 합니다. 새로 장만한 7번 아이언을 들고, 백내장 수술로 맑아진 눈으로 그 벤치에 앉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우주 저편 어딘가에서 선배가 제 첫 샷을 인도해 주시어, 공을 그린 앞쪽에 가볍게 올려놓고 똑바른 오르막 짧은 퍼트를 남겨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침 일요일 저녁의 정겨운 바비큐 냄새가 코스로 스며 퍼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60년 성상을 함께하신 안사모님과 피터, 마이크, 데이비드, 네이션, 그리고 모든 유가족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장은 이제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갈구하던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으며, 축복의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노트르담의 어린 선수 C.J.Carr가 이상하게 생긴 공을 엔드존을 향해 던지고, "파이팅 아이리시(노트르담 대학교)" 팀이 위스콘신이나 퍼듀 대학과 맞붙을 때? 그곳이 램보 필드 이든 유서 깊은 노트르담 경기장이든? 수만 명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구 선배는 여전히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5일에 Laird Funeral Home에서 있었던 구경회 선배님의 추모식에서의 영어 eulogy의 번역본)



오호 통재라/애재라 벗 한광수 천국 타계를 애도하노라

이홍빈 (63, 뉴저지)

이 아침에 하 놀랍구 슬픈 소리 아픈 소식	다 품안구 판에 세상 좁아라 살았잖나?
이런 기겁을 할 소식 이 뭐야 그 무슨 소리	우리 돌아봄 한 세상 깃/‘망구’이길 그만함 행복으루 잘 살구 가잖나
‘별세’ ‘이승’에서 왜 뛰어내려 ‘그승’을	빠어나게 잘 들두 나서 어려운 세상 깃 잘들 살구
그런 소식/‘부고’는 (평생) 안 와야겨늘 그 슬픈 소식/이 아픈 소리	홀 홀 마지막 ‘그승’/천국 가던길 뒤돌아 볼땐 아니 아쉬웠으면
두구두구 평생을 떨떨할 것만 같던 이 ‘떨떨한 친구’야	‘Lacrima 지 애빗’ 일그러 지는들, 웃음 머금으며 안 떠났으면?
근래 기침이 들어 고장병원 들락이며 고작 좀 아팠다 거늘	그래 ... 잘 가시게 안녕
그렇게 훌쩍 오늘 영 떠나는 ‘그런 법이’ 어데있냐? 니 마난님 계두? 같은 힐난 힐책 ‘그런 법이 어데 있디요’	몇백겁 우리 인연졌으매 나중 꼭 다시 ‘천국조우’/다시 봄세
우리 돌아 봄 힘들던 세월	얼마나 뛰게 그때 다시 안 반가우려?
니나 내나 그만 함 호강으로 살았잖나	그래 꼭 우리 그렇게 다시 봄세
때에 어려운 세상 빠어나게 잘 들두 나서	... 다 두구 훌쩍 ‘그승’/천국 다달은 네게 난 지금 술잔을 올리네
왜 아니래 한껏 흰소리 큰소리 열린 마음으루?	(나중 내 돌아감 누 있어 석별의 잔 노래를)

사진: 63졸업 한광수 영정 앞에서 좌부터 고영희, 한기현, 진병학, 이홍빈, 이종두

닥터 한광수(63) 님의 일생을 기리면서

지난 3월 21일 고 한광수 님의 일생을 기리는 예식이 Fairfax, Virginia에서 있었다. 그는 1월 초에 감기가 걸린 후 10일만에 폐렴으로 되어 갑자기 타계하여 놀라게 했다. 이날 참여한 200여 명의 조문객과 이웃, 친구들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의 명복을 빌었다. 서울의대 교가와 화환을 비롯하여 서울고등학교, 이화 여자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보내온 많은 추모 화환과 메시지가 가득한 식장, 이날은 날씨도 맑고 따뜻한 봄 날이었다.

기독교 영어 예식으로 Bensen, Bowen, Becker, Jae, Russell, Noah 자녀들과 그리고 모임을 맡은 장남 Bobby, 유모어가 넘치는 딸 Angie와 귀여운 손녀 Ellie가 정이 가득한 특이한 회고담으로 청중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C.H.Bae의 장엄한 “Pilgrim’s Song” 노래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Rev. Eugene Cha가 예식을 주도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뉴저지에서 참여하신 의대 친구 이홍빈, 한기현, 멀리 피츠버그에서 오신 진병학, 고영희, 이종두 님들이 모두 부부로 참여하시어 눈길을 끌었다. 고인의 서울고등학교 동기 고 윤경희 박사 부인 이정렬 여사, 워싱턴 지역 의대 동창회 박수웅 회장 부부와 김병오 회장 부부가 유가족을 위로했다. 고인은 몇 해 전에 시계탑 신문에 63년도 의대졸업 60주년 참가기를 보내온 분이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는 Sylva, North Carolina에서 33년간 6,200명의 신생아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모르는 분이 없다. 그 지역정부의 공로상을 받으신 분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은퇴 후에도 세계 각지로 환경이 열악한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한 인술을 실천한 기독교인이며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서울의대 동문이다. (글: 편집인 서윤석)

친구 권영조(72)를 하늘 나라로 보내면서

이 남 수 (71, 남가주)



산행 중 권영조(72, 왼쪽)와 이남수(7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걱정하여도...”

친구 권영조가 갔네요. 999당(Laguna woods village)를 천당 바로 밑에 있는 살기 좋은 동네라 해서 999당이라 부릅니다)에서 좋아하던 골프 실컷 치고 매주 금요일 산행 후에는 맥 다방(Mc Donald)에 가서 이웃 사람들과 이바구 실컷 하고 저녁노을 해 질 무렵 천당으로 가는 천국 열차를 탔네요. 그 생전에 자기 생을 노자의 생각에 비추어보며 심혈을 기울여 쓴 책 “노자 도덕경, 동서양의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60일 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마음을 비우고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지난 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도덕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하루의 마주하는 작은 일에도 만족과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그동안 모르고 살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특히 내 가족, 친구, 직업 등 아직도 나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에 의한 것이지 나의 의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깨달았다.”

영조는 환난 중에도 노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이미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조는 윤철기삼(운이 70프로 실력이 30프로)이란 말을 평소에도 골프를 칠 때도 자주 하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삶에 감사하는 태도가 노자의 사상을 실

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던 감사한 친구였습니다. 대장암과 투병하는 20년을 옆에서 지켜 돌보아 주는 아내에게 감사해 하며 자신의 사후에 닥칠 어려움에 힘들어할 아내를 항상 염려 걱정을 하였습니다. 두 아이들 Edward와 Hannah에게 노자의 사상을 알려 주고 싶어 영문으로 함께 썼던 자상하고 사려 깊은 아버지였습니다. 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 술 취한 듯 횡설수설해서 몰핀 때문인가 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진통제를 안 줬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체기능이 최악의 상태일 때 뇌도 갑박갑박하거든요. 무거운 가슴으로 기다리니 잠시 정신이 돌아온듯하여 반가운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려 하니 친구가 내 손을 잡으며 “가지 마” 하는 말에 발길이 천근이 되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올게” 하며 서둘러 떠나온 마음이 지금도 아픕니다. 일주일 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구를 보러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잠이 든 양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아직도 온기가 있어 따뜻하였지만 손 색깔은 청색이어서 폐가 힘들어하고 있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친구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반갑게 우리 친구를 영접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 소리를 들은 양 친구가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우리를 찾는 것 같았지만 눈에 초점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인사처럼 하고 또 올게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슬픈 마음 중에 감사한 건 마지막 친구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영조야!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 마치고 더 이상 아픔 없고 슬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너를 이 세상에서 벗으로 지낸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할게...

장학금 지급과 장학사업 관련 사항 보고

2025-2026 장학위원회에서는 아래 13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김태웅(63)장학금 3명 : 김성민, 권민혁, 이지수 / 김일영(71)장학금 4명 : 김인성, 김영환, 권하은, 임유빈 / 고 조세진(71) 조영 여사 장학금 4명: 최혜리, 강해인, 이상진, 류오드리 / 고 김태웅(67) 김정화 여사 장학금 1명: 강유진 / 고 이종오(64) 이기배 여사 장학금 1명 : 오유경

고 박세준(64) 동문의 부인 박화자 여사께서 20만불 상당의 증권을 기부하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구철회(84) 동문께서 미주재단에 의과대학 관련 장학금으로 7만달러를 기부했다. 구 동문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소아과를 개업하고 있다. .



Reader's Column - 편집실에 온 편지

늦게나마 전하는 감사의 인사

1984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며 오랜 세월 바쁘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졸업 40주년에 모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나에게 장학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준 우리의 대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배려 덕분에 저는 학업에 더욱 전념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도움을 늦게나마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늦게나마 모교에 감사를 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마음의 짐을 덜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철회 배상(84, 남가주)

녹십자병원을 녹색병원으로

지난 호 시계탑 53권 1호 제6면에 게재된 29회(75년 졸) 50주년 Reunion 기사 중 “...가난한 사람을 위해 녹십자병원을 창립한 양길승 군도 있다”에서 ‘녹십자병원’을 ‘녹색병원’으로 정정합니다.

녹색병원은 원진재단 부설병원이며, 2003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400병상 규모로 첨단 시설을 갖추고 진료를 시작했고, 현재 21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1980-90년대 원진 레이언 이황화탄소 중독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과정 중, 29회 입학 동기 양길승 군이 설립한 녹십자병원은 초기에 노동자 건강 인권 문제를 돌보는 것을 지나 지역주민의 동반자로서 건강한 지역, 건강한 노동,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reenhospital.co.kr

10/10 문답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은 얼마를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가장 결혼생활 중에서 행복하셨을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임상을 하셨나요 전공은? 연구를 하셨나요?
4.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의대 학창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국민(초등)학교 시절에 숨겨놓았던 나누고 싶은 좋은 경험담이나 숨은 이야기.
6. 다시 태어나서도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법관, 정치가, 사업가, 예술, 문학가.
7. 자녀를 양육하는데 후배들에게 참고가 될 사항이나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 필요하다면 물론 자량이 되어도 좋습니다.
8. 현재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운동?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현 의료시스템의 장 단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9. 현재 무슨 취미생활을 하시나요? 혹시 종교활동을 하시나요?
10. 동창회와 시계탑 편집위원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김규호(64, IL)



1. 미국에서 전문의 교육을 받고 오신 소장교수이신 고광욱 교수와 민병철 교수를 흠모하며 미국으로 진출하는 꿈을 꾸었던 학생들이 우리 학년에는 많았어요. 그것을 위하여 졸업 후 우선 군의관 지원이 거의 3/4이었고, 나도 해군 군의관 시험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시험을 함께 치렀어요. 둘 다 합격하니 해군에서 빠가지는 못하더군요. 당시 대학병원 인턴 월급이 500원, NMC는 1,000원(미화로 각 5불, 10불)의 월급을 받았는데 불평 하나도 안 했어요. 담배 한 갑에 아리랑이 20원, 파고다가 30원 할 때였어요. NMC에서 소아과 전공의 3년차 때 미국으로 오게 되었지요. Kim's Plan(김수영 의무감)으로 5년을 기약했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서 선진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때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떠나는 나를 위해 김포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단니까요. 1967년 6월 28일이었어요.

2. 교류가 있던 먼 친척 댁에 나보다 7살 아래인 막내딸의 친구가 경기여고 다니면서 국전에도 입선하고 서울미대에 진학하더군요. 마음에는 있으면서도 지켜만 봤지요. 내가 미국으로 올 때 미대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개업할 때쯤 혼담이 있었지요. 어렸을 때 귀여웠지만 너무 어려 언감생심 꿈도 꾸지를 못했는데 어느새 성숙하여 내 맘에 꼭 드는 여인이 된 것을 알았어요.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경우와 같아 고마웠어요. 중학교 미술교사로 있다면서 서울대 대학원도 마쳤고 국전에도 8번이나 입선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4 모녀가 경기여고 출신이고, 둘은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했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장인이 되실 분의 3형제가 모두 나와 고등학교 선배더군요. 얼굴도 어여쁘게 겸손하고 다소곳한 아내를 배우자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나하고 결혼을 해준 것을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되겠지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큰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Microsoft에 취직했을 때였어요. 시애틀 해변가를 구경시켜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스테이크든 해산물 요리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준다고요. 그때 봤어요. 해변가에 즐비하게 서 있는 핫도그 판매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보고 핫도그를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지요. "What more do we want?" 행복의 순간이었죠.

한 가지 수수께끼, 백일백색이 무엇인지 선배님들께 여쭙보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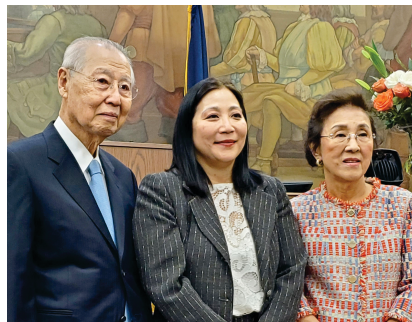
3. 저는 소아과를 전공했고 36년간 단독 개원으로 일한 후 은퇴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처럼 거창한 꿈은 없었어요. 다

만 안정적이고 존경을 받는 직업을 원했고, 판사나 의사, 은행원 셋 중에 하나를 꿈꾸고 있었어요. 고2 말에 이과-문과 선택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님이 조용히 안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많이 망설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휘문고보를 만16세 되기 전에 졸업하셨는데, 원하던 경의전 시험에는 낙방하셨답니다. 그래서 은행원의 길을 택하시게 되었노라고요. 절대 강요는 안 하셨지만 나에게 기대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제가 서울의대에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합격했지요. 의대를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의사가 되는 조건은 건강한 사고력, 판단력, 인내심, 무엇보다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4. 아마 1977년이었어요. 27-28주쯤 태어난 1050g 짜리 조산아였지요. 시골병원이었지만, 나와 동료 의사가 간호원들을 잘 교육시켜 교환 수혈도 할 수 있었던 신생아실이 있었지요. 50마일이나 떨어진 대학병원에 보내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내가 다루어 보기로 했어요. 겁은 났지만 기도삽관, 제대절개술, 정맥주사에도 능숙하고, Michael Reese 병원에서 1년차 때 2개월간, 2년차 때 2개월간 신생아실 경험이 있어서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마취과 의사의 도움으로 인공호흡기도 사용하고, 노련한 간호원들의 극진한 정성으로 아이가 잘 견디더군요. 문제는 기도내 튜브가 몇 번 빠지는 것이었어요. 두 번쯤은 밤에 집에서 달려나가 기도삽관을 다시 해주어야 했어요. 한 열흘 되니까 안정되는 것 같았고, 놀랍게도 교과서처럼 무게가 매일 1/2 oz.씩 올라갔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3주쯤 됐을 때, 옛날에 등록했던 소아과학회에 꼭 가고 싶어 동료의 양해를 받았지요. 그는 훌륭한 소아심장학 전문의였지만 삽관 시술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고 내심 조금 미안했어요. 하지만 3주일간 마음을 쓰고 긴장했더니 기진맥진했기에 나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시카고 학회에서 걱정했던 기관지연화증(bronchomalacia)에 관한 강의도 듣고 온 첫날밤에 동료에게서 전화가 오네요. 환자가 사망했다고요. 섭섭했지만 한편 안도의 숨을 깊게 쉬는 나쁜 나를 발견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줄지도 모르는 미숙아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이었어요.

NMC에 근무했던 3년 3개월 동안 4명의 신생아 과사환자를 경험했는데 스칸디나비아 출신인 과사를 비롯해서 모두 속수무책이었어요. 인공호흡기도 시원치 않았고 정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요. 3년 후 Michael Reese병원 소아과 1년차 때에 12세의 백인 아이가 과사환자로 입원했는데 마침 내가 담당했어요. 소아과, 감염의학과, 마취과가 총동원되어 대응 방침을 세우는데 감동했어요. 전신의 근육을 마비시키고는 호흡기에 의존케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삽관을 한 상태니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지요. 환자의 의식은 멀쩡했기에 드물게 오는 전신 경직이 환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 수 있었어요. 심한 경직 때 척추 골절이 오기도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병상 간호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케 하는 병이지요. 그 소년이 완치되어 3주 후에 퇴원할 때는 체중이 100 파운드에서 80 파운드로 줄었어요. 재활

김건언(65, 대뉴욕)



1. 1965년 의대 졸업 후 모교병원 심장흉부외과 인턴으로 선발되었는데, 마침 국방부에서 'Kim's Plan' (먼저 외국에서 전문의 수련을 마친 후 군복무를 하는 제도)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 방향을 선택하였다. 국가에서는 아무 지원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여비 50달러를 들고 1965년 6월 말에 하와이를 경유하여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Einstein Medical Center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험악한 지하철이었다. 무지와 용감의 소치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2. 1966년에 필라델피아 뮤직 아카데미에 학생으로 온 최은경(이화여대 기악과 피아노)양과 1967년에 결혼을 하였다. 나와 마찬가지로 집사람도 유학 후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라 한국에는 아직 연주자가 없었던 하프를 전공을 바꾸었고, 뉴욕으로 옮긴 후 맨하탄 음대에서 하프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3. 의사가 된 동기는 만누님께서 이화여대 의대 생리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것이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다. 누님은 나중에 이대의대 학장을 하셨다. 나의 전공은 한국에 없었던 혈관외과로, 일반외과 수료 후 2년 더 전임의 수련을 하는 제도였다.

4. 의사 활동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인턴 시작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응급실에 배정되어 약처방을 할 때였다.

치료 처방을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실패를 회복한 심정이었어요.

또 아찔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특이한 병 아니면 입원하기가 어려운 NMC에 내과 과장 김종설 선생이 41세 여인을 입원시켰어요. 배가 만삭처럼 불러있었고 월경은 20개월 전이 마지막이라 난소 낭종 같아서 OB Synopsis을 들쳐보니 복수천자하면 초콜릿 색깔의 물이 나온다고 읽고 신이 나서 1년 선배인 1년차 내과 레지던트에게 허락을 받고 인턴인 제가 천자를 했어요. 정말로 주사기에 초콜릿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나서 다음날 아침 회진 시간에 들떠서 소견을 말하는데 과장 선생님이 엑스레이는 찍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찔했어요. 사진을 찍어보니 천자했던 그 반대편에 만삭의 태아가 들어있어 있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를 부르고 제왕절개하였는데, 다행히 건강한 아이를 받아내고 거대한 난소 낭종도 제거했다고 들었지요. 20개월 월경 안 한 여인에게 임신이었다니 참! 그때부터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고, 아는 길도 물어가면서 40년을 지냈어요.

아내와 사랑을 즐길 수 있으며 아들 딸 잘 낳아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무엇 있을까요?

미국식 약 이름과 용량(단위가 g이나 mg이 아니고 oz를 사용)을 아직 잘 모를 때여서 당황스러웠다. 또한 학생 때 산과에서 분만 과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왔는데, 고맙게도 노련한 간호사가 도와 주어 무사히 넘겼다. 보람 있었던 일은, 결혼 후 돈을 좀 벌해보려고 도시 외곽 Reading PA Hospital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을 때 Mrs. O'Hare(2차대전 하와이 전쟁 영웅, 시카고 비행장 명칭)가 심장마비로 실려왔는데 살려낸 일이다. 환자가 의식을 잃기 바로 전에 IV와 기도 삽관을 하고 전기 충격을 2번 시행하여 심장을 소생시키고 응급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게하여 그 분이 30여 년 더 살 수 있었다. Mrs. O'Hare는 후에 나의 결혼기념일에 돈(\$)으로 장식한 나무(money tree)를 선물로 주셨고,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의 부당한 차별이나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셨다. 그 분이 지역 유력 방송인 Reading radio station의 담당 연출자 및 아나운서라는 사실도 도움이 된 것 같다.

5. 합춘시절 의대학생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도서반(각 학년 2명) 임원으로 활동하며 바로 윗 학년 권정덕 선배 등의 족보를 물려받을 수 있었고, 문리대/의대 태권도 활동(청도관 검은띠)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의대 사진반을 창설한 초대 회장으로서 YMCA 전시장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 수 있었는데, 이는 사진작가 임응식 교수를 외부 지도교수로 모신데다가 쟁쟁한 고문교수(나세진 학장, 이규명 교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된다. 본관 해부학 교실 내에 사진반 암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 덕분이였다.

6. 다시 태어나도 의사의 길을 택했으리라 생각된다. NYU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마다 하고 혈관외과를 택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 전성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된다 (Good days are over now). 혈관외과 수련 후 바로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스승이셨던 민병철 (다음면에 계속)

5. 우등상 받으려고 했었어요. 91.3점과 91.4점 차이를 아시나요? 고3 때 91.3을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지만, 정작 우등상은 받지 못했어요. 우리 학년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관계로 90점 이상이 92명이나 되어 92점에서 끊더군요. 고교 54주년 때 240명 정도 LA에 모여서 3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같은 반이었고 의대도 같이 나온 친구와 여행 중 어느날 밤 길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졸업 때 91.5점을 받았으면 우등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91.4를 받아서 우등상을 못 받았고, 91.5만 받았으면 사사오입해서 우등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나도 91.3을 받았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사사오입까지 생각했던 그가 54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한이 몽클 하네요. 그 한을 나에게 토로한 그 친구가 더 가깝게도 느껴졌어요. 생각해 보니 그 친구나 나나 체육에서 80점 이상은 가망이 없지요. 우리 학년이 공부 잘했던 것이 확실해요. 120명 정원에 42명이 의대에 합격했으니 말이예요.

얕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예과나 본과 1,2학년 때 참 농땡이도 많이 부렸고 재시험도, 커닝도 많이 했어요. 시험 때 이문호 교수가(7면에)



홍은경 (14) 동문
영상의학과, California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한국에서 영상의학 전문의로서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출산을 계기로 커리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임상으로 돌아가면서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고심 끝에 일단 미국에서 임상 수련을 해보기로 결정했고,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흉부영상 전임의 수련을 거쳐 현재는 Stanford 조교수로 임용되어 임상과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그 동안의 수련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졸업 후 모교 병원에서 인턴 및 영상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유럽으로 건너가 네덜란드 암센터에서 중앙 영상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장암 환자에서 CT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했고, 임상 의사결정에 영상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제 커리어에서 방향이 크게 바뀐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미해서는 일단 임상으로 돌아와 흉부영상 전임의 과정을 마쳤고요. 돌아보면 임상, 연구, 산업을 모두 경험한 것이 자산이 되어 지금의 방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 몸담았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의료 인공지능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좋은 기술'과 '실제

로 쓰이는 기술'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VUNO라는 회사에서는 의료영상 인공지능 기술의 임상적인 가치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아서 폐 결절 흉부 CT, 뇌 MRI 등에 적합한 제품이 어떻게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임상적인 전략을 짜고 의료법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지요. 미국, 일본, 유럽 등 각 국가별 규제에 맞춰 제품을 준비하고, 미국식약청 임상 시험을 위한 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Kakao Brain에 몸담았었는데, 그 곳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기반으로 한 흉부 엑스레이 판독지 생성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해 임상 적용까지 이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병원들과 협업하여 수천만건 규모의 의료자료를 단기간에 확보하고, 흩어져 있는 비정형적인 자료를 인공지능이 실제 학습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모델의 임상적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했지요. 제품개발팀, 연구자, 의사, 사업팀을 동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품을 출시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는 Stanford에서 임상 진료를 주로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상의학 업무 전반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단순히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을 넘어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단과 업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전공으로 흉부영상의학과를 선택하신 계기는?

흉부영상은 기본적인 엑스레이부터 고해상도 CT, 폐암 검진, 응급환자 및 중환자 영상까지 범위가 넓고, 환자 진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임상과의 연결이 밀접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다학제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지요. 또한, 흉부영상에 인공지능 적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라서 제 관심 분야와도 잘 맞았습니다.

5. 요즘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흉부 엑스레이와 CT 판독이 하루의 중심이고, 필요할 때는 임상의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영상 검사의 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예전보다 판독량 자체가 확실히 많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입원환자 영상은 빠르고도 정확한 판독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학병원이다 보니 교육과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 회의나 논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침, 밤, 주말 시간을 쪼개서 연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단순히 판독으로 끝나기보다는, 임상·교육·연구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일정이 꽤 촘촘한 편입니다.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6. 병원과 팔로알토 지역 소개해주세요.

아직 이사 온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병원과 동네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Stanford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환경임을 느낍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에 비해 그것을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적인 관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인상을 받아 의외였습니다. 팔로알토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어 기술적인 환경은 매우 좋고, 생활은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주거 비용이 경이적으로 높은 것은 누구나 느끼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7. 주말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육아를 하며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근처에 계신 차재철(68졸), 박은경(00졸), 안상민(02졸) 동문 선배님들을 알게되어 가족들도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타지에서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미국에서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장점은 아이 중심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외출이나 식당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8.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볼까요.

청소년기와 학부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고 의전원에 합격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전원 시절 한국 문화나 학교 생활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 영향인지 동아리 활동 등 교내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응하는 것 자체에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를 통해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버티고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그런 경험이 이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 미국 생활에서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미국 생활에서 힘든 부분은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간단한 일도 대부분 전화를 일일이 걸어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처럼 인터넷으로 빠르게 처리되거나 배달이 잘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불편함을 자주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불

봄내음

김기연

파릇 파릇 봄내음
길가에 새싹들이
겨울내내 땅속에서
묻혀지낸 인고의 시간들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던
술한 나날들
언제 또 그랬느냐는듯이
방긋이 고개 내밀고
수선화, 개나리 노랑꽃으로
봄내음 장식하면
내마음 고향으로 가
울엄마 동산에도
진달래꽃 향기가득
봄내음 전하리

*주광국(68) 동문 부인 버지니아



편함에 어느 정도 적응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족과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 가장 편하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10. 개인적 혹은 직업적인 향후 계획은?

미국 의사 생활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5년 동안은 임상과 연구 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상의학 전반에서 의미있게 쓰려면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많아서, 그 부분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계속 검증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막상 해보니 이 부분은 생각보다 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은 후배들에게는 '확고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든 경제적인 목표이든 아니면 본인이 이루고 싶은 어떤 방향이든, 중간에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결국은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전면에서 계속> 원장님의 권유로 1995년 현대아산병원(중앙병원)에서 혈관센터 소장으로 일한 10여년은 보람있는 기간이었다. 한국이 88 올림픽 개최 이후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하였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의료 부문은 1995년에도 미국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식 의료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한국 학회 활동으로 함춘학술의학상 수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회원, 대한외과학회 정회원, 외과 전문의시험 출제위원, 대한혈관학회 회장으로 한일 혈관학회를 제주도에 유치한 것, 혈관접근학회(Korean Angio Access Society) 초대 회장, 보험공단 비상임 심사위원 등의 바쁜 일정이었다. 미국 혈관학회와의 교류는 계속하였으며 Society for Vascular Surgery(SVS)의

Distinguished Fellow를 수여받았고, 은퇴 후에 회비를 면제 받아 무료로 Journal of Vascular Surgery를 받아보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의대 대우육지부 동창회장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당시 총무였던 후배 석창호 동문(72졸)에게 잔여 임기를 부탁하고 한국으로 떠났던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다.

7. 자녀들에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장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혹시 돈(성공)을 못 벌어도 자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까닭에 실망이나 후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님께서 항상 상기시켜주셨던 "오리 같이 걷고, 수영하고, 날아가는 여러가지를 할 줄 아는 것 보다는 경주마같이 뛰는 것 한가지만 제일 잘 하는 것이 더 빛

난다"는 말씀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8. 건강유지: 적당한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나도 최고 체중을 10kg 줄였다. 간단한 태극권으로 몸을 풀고, 하루에 5천보쯤 걷고, 골프는 일주일에 두세 번 9홀이나 18홀을 친다.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환자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수술을 해 주지 않았다. 처음에는 흡연 유무를 검사하지 않았지만 1995년 후반 부터는 시스템을 갖추어 2주에 한번 흡연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환자가 흡연을 할 경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환자에게도 좋지 않고 또한 나의 수술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흡연검사 결과 때문에 수술이 취소된 환자는 청와대에 민원까지 내었지만, 나는 내 소신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다.

9. 종교 생활은 태종 천주교인(모태신앙)으로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취미로는 아주 잘 하지는 않지만 골프를 친다. 전에 야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 태권도 사범이었던 분들은 다 잘 치는데 나의 실력은 별로이다.

10. 편집위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장기간 봉사하시는 모습에 고맙고 찬사를 드립니다.

요새 인공지능도 나오고 해서 동창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좋은 종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꼭 최고 품질의 종이를 쓰지 않는다면 비용 절감이 되는지요? 시계탑도 미주 서울대 신문같이 종신 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회원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기부하실 여력을 가지고 계신 동문들은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2026 남가주 신년하례식 및 총회 참관기

나 두 섭(73, 남가주)



2026 남가주 신년하례식 및 총회가 LA의 한 Banquet Hall에서 열렸다. 신년하례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3월 28일에 열렸는가? 남가주에서는 송년회 대신 신년회를 열었는데 이것은 연말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매년 1월이나 2월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2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날짜를 조정하다 보니 3월 28일에 열리게 되었다.

동창회라는 것이 졸업생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를 위해서 혹은 개인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텐데 모여서 함께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예전부터 참석하던 분들에게는 큰 문제 될 것이 아니나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웬만한 결단이 없으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친근감이 생기고 또 다들 어떻게 변해가는지 궁금해져서 참석하기가 수월해진다.

남가주 의대 동창회는 예전에는 엄청난 수의 동창 회원들로 이루어졌었고 이곳의 서울대 총동창회 모임이 무색할 만한 규모였는데 총동창회는 젊은 회원 숫자가 늘어나는 한편 의대 쪽에서는 중심을 이루던 분들은 연로하시게 되어 이미 타계하셨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져 참석이 불가하고 새로 들어오는 젊은 의대 졸업생들은 제도상 극히 제한된 상황이라서 이런 모임에 참가하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60년대에 ECFMG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 원서들이 수없이 보내져 왔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창생들이 한국에 남아 있는 그 수를 능가하던 시절을 상기한다면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것이 세상사인데 많은 즐거운 일들 가운데 반가운 얼굴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자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즐겁다고 하였는데 요즘은 그것을 기대하기는 각자가 바빠서 어렵게 되었고 이런 모임에 참가하는 것보다 더 쉽게 친구를 만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모임은 2년 만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난 선후배님들 다시 대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이른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처음 보면 서먹하다 가도 다시 보면 익숙해지고 또다시 보면 친근해지는 것이 인 지상정이 아닌가.

이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져 모임은 낮 12시에 열렸다. 시작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배너 설치, 식탁의 꽃 장식, 포토존 설치 그리고 음악 경연 등 여흥 준비 등으로 바빴고 곧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였다. 여러 선배님들이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연로해 지신 것이 완연히 보였고 지팡이에 의지하는 분들도 눈에 띄었다. 그래도 모임에 참석한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눈빛은 너무나 선명하였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안나 카레리나 영화에 나오는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단장되었다.

<4면에서 계속> 나전어(Latin) 시험 때 감독관으로 들어오셨는데, 엄격하게 하시어 대 여섯 명이 발각되어 퇴장당하는 속에서도 나는 들리지 않고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어 열 문제의 답을 완벽하게 써 낼 수가 있었지요. 커닝의 대가인 척 웃으면서요. 그런데 웬걸, 점수가 F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실수로 9번과 10번의 답을 거꾸로 적었더군요. 왕십리 달동네의 교수님 맥을 찾아가고, 몇 시간 기다리다가 그 높은 골목길을 올라오시는 교수님을 뵈 수 있었어요. 그러한 가난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농땡이를 부렸던 것이 부끄러워 빌었지요. 용서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좋아하시던 담배 한 갑이라도 사 들고 갈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나 본과 3,4학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의사다운 의사가 되려면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졸업반에서는 등록금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더군요. 등록금이 5천 원이었는데 5만 원이었는데는 기억이 삼삼한데, 아마도 5천원이 맞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할 때는 했으니까 지금 후회는 없지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이왕 배우려고 들어간 학교라면 한 번 진지하게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또 그 수많은 분과 전문의 때문에 일반 소아과 의사의 영역이 훨씬 좁게 되지 않을까요?
7. 서두르지 말라고요. 나는 애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에 열을 셀 때까지 기다리지요. 하나, 둘, 하고 세노라면 열을 세기 전에 대부분 성공해요. 애들 놀 때 5분이나 10분 집중해서 관찰하다 보면 참나적으로 아이의 특이한 재능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잠착해 주시면 좋지요. 또 부모가 서로 존경하는 모습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삼 남매와 그 배우자들이 전부 하버드나 하버드 대학원 출신이니 그런대로 우리가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삼 남매의 생일들이 9월과 11월인데, 5살 이전에 학교에 보낼 수 있었지만 아들 둘은 그 다음 해에 보냈어요.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살 위도 많았고 두 살, 심지어는 네 살 위도 있었기에 좀 심사숙고 했지요. 어려운 문제지요. 정부가 개선하려 노력하잖아요? 현실에 만족해야지요.

김자성(85) 회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말로 하례식 및 총회는 시작되었다. 이어서 끼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이면 697 컵의 콜라를 공짜로 마신 셈이 되네요. 두어 시간 앉아서 끄적거리다가 집으로 올 때는 마음이 맑아지고 참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세상 참 좋아지지 않았나요. 보청기에 인공와우이식, 마이크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소통할 수 있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나마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고마운 것이 이제 Tablet을 앞에 놓고 친구와 대화할 때 친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전사되어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세대 아니겠어요? 고마워해야 할 것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6. 만일 그림 그리는 재주를 갖고 태어난다면 자기의 꿈이나 마음을 과감하게 화폭에 옮길 수 있는 화가가 되었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 좋지요. 특히 소아과 의사로 다시 살고 싶네요. 우리 시대의 소아과가 그래도 가장 아기자기하고 재미가 있었던 거 같았기에 미래의 소아과가 어떻게 될까 겁도 나기는 하지만요. 4개월짜리 환자의 급성 전격 수막알균혈증, 6주짜리 백일해, 요란한 쿠스말 호흡을 보이는 심한 당뇨병성 케톤산증, 1주짜리의 리스테리아 수막염, 가와사키 병, 후두개염, 3주짜리의 이란성 쌍둥이에서의 비후성 유문협착증, 2개월짜리의 두개골 조기유합증 2명, 2주짜리의 클라미디아 폐렴, 그 흔했던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홍역, 수두, 류마티스 열, 24세의 젊은 엄마에게 태어난 다운 증후군 쌍둥이, 6개월짜리의 반추장애, 2살짜리의 심한 변와 모발위석, 한 살짜리들의 간경화 등 그 수많은 병을 다룰

8. 2008년 아주 경미한 뇌졸중 때문에 골프를 접었지요, 골프를 치고 싶어 안달을 안 떨어도 되고 건강에 유의하기 시작했어요. 소염 소식으로 체중도 젊었을 때의 무게로 내릴 수 있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하고 나니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인 셈이에요. 6년 전까지만 해도 1,600보 거리의 맥도날드나 버거킹까지 매일 걸어 다녔어요. 지난 6년간은 직원의 변동이 없는 버거킹은 코로나19 판데믹 때 단지 3개월만 가게 안에서 식사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매일 새벽에 버거킹에 가서 두어 시간 앉아서 끄적거리곤 해요. 직원들이 하도 친절해서 코스트코에서 파는 텍시도 초콜릿 케이크를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시니어 커피라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때쯤 40대인 둘째 아들이 식습관을 바꿔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에 네 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자랄 때 콜라를 산 적이 없었어요, 마시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나 자신이 마셔서 부작용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버거킹에서 이제 커피 대신 제일 큰 컵(32oz)에 다이어트 콜라를 지난 6년간 마시고 있는데, 부작용을 그리느

71센트, 많이 올랐고 3개월마다 조금씩 오르네요. 한 갑 갖고 3,4일 피니 아직은 감당할 수 있네요. 다행히도 아내가 자기보다 더 오랜 애인이라고 이해해 주면서 눈감아 주는 것이 고맙지요. 이제는 담배 피우는 지인들 별로 없네요. 가끔 친구들이 자기 남편 담배 끊었다고 아내에게 자랑한다는데, 모임에서 밖에 나가보면 그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것 종종 볼 수도 있지요. 이제 한 달 후면 86세가 되는 데 꼭 끊어야 할까요? 어느 종양학 교수와는 귀국 시에 담배를 같이 피면서 담배 왜 끊어? 하고 농담을 하면서 즐길 때도 있었지요. 그 친구가 폐암에 걸리니까 서울에서 동경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충정은 이해하지만요.

고용규(73) 전 회장의 선창으로 다 같이 교가를 불렀다. 그전에 교기 입장도 있었다. 이 순간은 언제나 익숙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음은 김성환(71)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나하고 김자성 회장하고 단 둘이만 참석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 모임에 대한 염려를 엿볼 수 있었다. 모임이 있을 때 함께해 주는 것보다 더 격려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다음은 항상 활기에 넘치는 전경배(75) 전회장의 축사와 이상강(79) 전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장의 정성 어린 축사가 있었다. 공식 순서가 끝난 후에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단체 사진을 찍으므로 1부의 공식 순서는 끝났다.

이어서 전통 한식 뷔페로 된 점심 식사 후에 2부 여흥 순서가 있었다. 전문 DJ의 반주에 맞추어 평소에 익숙한 노래 부름이 있었고 몸에 밴 전문가 수준의 춤 솜씨를 발휘한 부부들은 분위기를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여흥 순서가 끝나 가면서 많은 부부들이 그리고 친구분들이 둘 셋 짝을 지어 준비된 Photo Zone에서 남가주 의대 동문 배너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다. 즐거운 모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덧 끝날 시간이 되었다. 이런 모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참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만이라도 꿈같은 시간을 가졌다. 다시 한번 김성환 이사장님, 김자성 회장님 이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해서 즐거움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9. 아내를 따라 감리교회로 나간 지가 46년 되는데요. 아직도 해매고 있어요. 처음 나간 교회의 목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교동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장철우 목사였던 기연도 있었지요. 근래에는 교인수가 점점 줄어 40-50가정쯤 되었고 대부분이 노인들이지요. 그래도 고교 동기 3명이 예배 후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 동성애자 문제로 교인들이 정말로 4분5월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또 갈라졌어요. 각기 5-6가정쯤으로 세 명의 동기조차 다 빨빨이 흩어져서 하도 숫자가 적으니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결석을 할 수가 없게 된 셈이지요. 정말 4분5월이라는 게 무엇인지 실감 나게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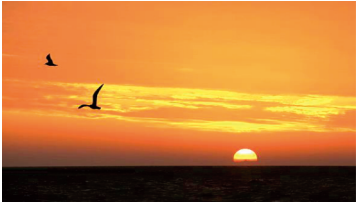
10.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는 학술지에 발표는 못하셨더라도 남들이 경험 못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아기자기하거나 깜짝 놀랄 또는 아찔했던 임상 경험을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귀한 체험담을 시계담을 통하여 나누어 보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동경 대학원(동네 경노당의 우스갯소리), 버거킹에 와서 공짜 콜라 마시면서 두어 자 끄적거리는 것도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유튜브에 사망 1년 전에 보이는 5가지 증상 중에 몸무게가 별안간 이유 없이 줄어드는 것, 또 옛날 생각만 많이 한다는 것도 들어있어서 조금은 겁이 나네요.



갈매기 또는 도깨비

서 량(69, 대뉴욕)



갈매기

그때 이렇게 따스한 물살이었다 캄캄한 우주를 앞서거나 뒤서거나 날아가는 갈매기 두 마리가 파도에 등실 뜨는 운명 같은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 거대한 전파망에 잡히는 지구 그림자를 본다 밀리듯 끌리듯 날아가는 갈매기 두 마리가 아주 없어져도 괜찮다 싶은 조그만 x字의 비상이다 그때 이렇게 눈부신 햇살이었다 시시각각 쪼개지는 진주홍색 하늘로 끼룩끼룩 덤벼들던 갈매기 두 마리의 발자국이 운명 같은 것이다 이렇게 조용한 아침에는



도깨비 하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더니 이 친구가 도깨비다 낮에 자고 밤에만 찾아온다 초승달 등 넘어 내 옆에 온다 개 같은 성미에 사소한 일로 울고 의사소통을 손짓 발짓으로 한다 생각이 맞을 때면 숲 속 하늘을 함께 쏘다니다 새벽 구름 사이를 등실 두등실 떠다니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양을 떨다가 별안간 내게 쌍소리를 한다

며칠 전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놈아 너는 진짜 너냐 아니면 정녕 어쩔 수 없는 내 검은 그림자냐 하며 갈 데까지 한번 가보자며 대들었다 눈알만 잔뜩 부라리다가 이내 킁킁 웃어대는 도깨비 자식 그때 밤하늘 별무리 금싸라기가 눈까풀에 우르르 쏟아져 내렸다 눈을 감아도 마냥 뜬 채로 었어



도깨비 노래

음정 박자는 얼추 맞지만 막상 허스키한 목소리 나를 긴장시키는 생소한 詩語 이것은 분자방정식이 자아내는 전자파장이다 무대가 밝아지며 마구 튀어 오르는 32분음표 콩나물대가리들이 공중에서 덩가덩가 막춤을 춘다 굉장히 빠른 템포입니다 당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알뜰살뜰한 詩想 하나 삼시간에 망가진다



허드슨강 갈매기

갈매기 한 마리 응접실 밖 창문턱에 아까부터 앉아있다 강변에 자욱한 안개 그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두꺼운 유리창 핸드폰을 거머쥐고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돌려 나를 가우뚱 바라보는 갈매기 숲속 울썩미가 고개를 돌려 어둠을 꿰뚫어보는 동작이네 그리고 나는 어둠이다

15회 동기 Baltimore에서만나다



박 승 균(61, 버펄로)

“적막, 심장의 깊은 곳까지 저리게 하는 여운. 나 영혼의 창 활짝 열어 소리 없는 울림. 그득한 광활한 허공을 오래오래 포용하다.”(정두현, 지리산 운해 중에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거듭되는 회의를 물리치고 우리 61년도 졸업, 15회 동기들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드디어 Baltimore 근교 Ellicott City에서 만났습니다. 평균 90의 나이를 넘나드는 우리들이 이런 단체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무모한 발상이었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많은 동기를 잃었습니다. 한동안 뉴욕시 근처에 많이 모여 살았던 동기가 뿔뿔이 헤어져 지금은 LA와 버지니아 볼티모어 근처에 몇 명씩 물려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모임은 볼티모어에서 처음부터 계속 살아온, 자칭 “터줏대감” 고의걸 군의 적극적인 주선과 노력으로 이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안타깝게도 최지원, 서휘열 두 동기를 잃었지만 아직도 고의걸, 이재승, 정두현, 강창욱, 진창건 동기가 이곳 동부의 요새를 지키면서 남아있습니다. 누가 발설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번 모임이 우리들의 마지막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비장하고도 불안한 명제가 아마도 이번 만남의 숨은 계기와 원동력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의 책임을 맡게 된 나로서는 수년 전에 일어났던 불길한 기억 때문에 얼마쯤 망설였습니다. 그 당시 강창욱 회장의 주선으로 일곱 커플이 Costa Rica 여행에 등록했었는데 막상 여행 떠나기 직전에 두 동기가 급서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멀리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명은 재천이라, 앞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혼자 다짐한 다음에 전국에 널려있는 동기들에게 가능한 한 이번 모임에 참가해달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조은순 군이 두말없이 제일 먼저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은순 군의 적극적이며 즉각적인 대답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LA에 살고 있는 황현상, 김영철 부부, 시카고에 사는 안창현 부부가 온다는 연락이 왔으며 또 멀리 플로리다 템파에서 혼자 사시는 미세스 정의철께서 오신다는 희보를 받고 드디어 이번 모임이 성사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의 의미를 더욱 진작시켜준 사실은 고 강세부, 서휴열, 정의철 부인들께서 오시게 되어서 특별한 사랑과 우정과 회고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펜실바니아 Harrisburg에 사시는 미세스 강께서는 특히 건강하시어서 요즈음에도 매일 골프를 치시며 옛날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버지니아 Great Falls에 사시는 미세스 서께서는 따님 Eileen Suh가 모시고 와서 사흘 동안 노인들과 지내느라 많이 힘도 들었지만 부모님들의 성정을 닮아서 무던히 잘 잡아주었습니다. 템파에 사시는 미세스 정께서는 혼자 비행기로 먼 데서 오

시는 것을 많이 힘들게 생각하셨지만 막상 호텔에 도착하고 나니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수웅, 한혜원 부부까지 24명과 고의걸 군의 아들 Philip, 손자 Timothy, 며느리 Jane과 사돈까지 오셔서 모두 28명으로 리셉션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10월 1일에 시작된 government shutdown 때문에 비행기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도 했지만 그것은 벌써 지나간 일, 우리는 어느새 시작도 끝도 없는 재미있고, 우습고, 슬프고,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습니다.

저녁식사는 Turf Valley 호텔에서 우선 황현상 장로의 간곡한 식사 기도로 시작되었고 고의걸 군의 특별한 고려로 최고급 양식이 나오면서 이번 모임은 벌써 반쯤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식사 이후에는 미리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선 Dr. 고의 아들 필립(기타)과 손자 팀(색소폰)의 반주에 따라 모두 일어서서 서울대학교 교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필립과 팀은 Provisational Jazz에 벌써 상당한 조예를 쌓아 올린 semi pro 같았으며 필립의 부인 Jane은 vocalist로 이 세 사람이 나와서 멋이 있는 음악으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고의걸 군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가 미리 부탁한 ‘모닥불’을 연주하였는데 우리는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라는 마지막 대목이 더 깊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소리가 연기같이 허공으로 사라져 갈까요? 돌아오는 메아리도 없이.

우리는 처음부터 참석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비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어떤이는 실제로 나와서 몸의 운동을 시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늙고 귀도 멀어지고 허리도 굽어진 게 사실이었지만 또 어떤 이는 아직도 놀랄 만큼 건강하고 몸의 유연성도 보여주었습니다. 도중에 서울에서 우리 학년 동기회장 심영보 군이 보내준 축사를 읽었고 또 우리 동의회 때면 그의 독특한 wit와 만담으로 늘 우리들을 웃겨주었던, 지금은 LA에 사는 최공창 군으로부터 보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본인은 건강 이유로 이번에는 참석 못 했지만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절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번 우리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쓴 헌시 두 편(울 듯 울 듯, 지리산 운해)을 우리 동기 백발의 시인 정두현 군이 나와서 직접 낭송하였습니다. 모두들 기쁘고 흥분된 표정으로 첫날 모임을 마쳤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가이드를 따라 고급 대형 버스로 Baltimore Inner Harbor를 향해 떠났습니다. 우선 고의걸 군의 의견에 따라 Fort McHenry를 찾아가셨었지만 가버먼트 섯다운 결과로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Fort McHenry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역사에 크게 (다음면에 계속)



산타바바라 여행

이 전 일(68, 남가주)



2026년 3월 29일, 일요일의 로스앤젤레스는 봄의 초입다운 나른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 앞은 프랭크 게리의 은빛 곡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9시 정각 출발을 약속하며 모인 일행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해야 마땅했으나, 그 설렘은 이내 목직함 침묵으로 가압되었다.

9시가 지나고 20분이 흐르도록 시동을 걸지 못한 버스 안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결국 9시 30분이 다되어서야 나타난 지각생은 아무 말 없이 당연한 듯 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공공의 시간은 결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님을, 그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무례함!

다행히 우리를 태운 대형 리무진버스는 20명 남짓한 인원이 쓰기에 과분할 정도로 넉넉했다. 넓은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버스가 101번 프리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기수를 돌리자, 창밖으로 멀어지는 LA의 마천루와 함께 무거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도착한 산타바바라(Santa Barbara)는 '아메리칸 리비에라'라는 별칭답게 푸른 바다와 붉은 기와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풍경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피어(Pier) 근처의 북적이는 활기를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오늘의 첫 목적지인 '쿠닌 와인너리(Kunin Winery)' 테이스팅 룸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예전 기억 속의 그 자리가 아니었다. 테이스팅 룸은 예전 위치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 있었는데, 한층 더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느껴지는 특유의 활기와 정겨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었다.

이곳은 내게 단순한 와인 시음장 그 이상의 장소다. 십수 년 전, 둘째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아이들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고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산타바바라를 찾았을 때 우연히 발견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 인연은 우리 부부의 금혼식 기념 여행으로까지 이어졌고, 그때 그 맛에 취해 와인 한 케이스를 가득 채워 나왔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속 소중한 페이지로 남아 있다. 이번 여행의 기획자인 마에스트로 석은 나의 사소한 추억을 잊지 않고, 새로 이전한 이 넓은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이전한 테이스팅 룸의 내부는 더욱 감각적이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짙은 회색의 대형 칠판에는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와인 지도가 분필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산타 이네즈 밸리의 지형과 해안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의 통로를 시각화한 지도는, 마치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가계도를 보는 듯한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원목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카운터 뒤에서 열정적으로 와인을 설명하는 스탠프의 모습은 이곳의 전문성을 더해주었다.



마에스트로 석이 준비한 치즈 플레이트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었다. 특히 내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선명한 주황빛의 미몰레트(Mimolette) 치즈였다. 이 치즈의 빛깔은 인공의 산물이 아니다. 중남미 '비사 오렐라나' 나무의 씨앗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 '아나토(Annatto)'가 빚어낸 자연의 색이다.

이 주황색에는 17세기 프랑스의 자존심이 깃들여 있다.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 네덜란드와의 전쟁으로 예담 치즈 수입이 금지되자 프랑스 장인들은 "예담과 비슷하되 확실히 프랑스 것임을 알 수 있는 치즈"를 만들라는 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아나토를 넣어 차별화한 미몰레트다. 전쟁과 애국심의 역사가 녹아있는 치즈를 한 조각 입에 넣으니, 고소하고 짭조름한 풍미가 혀 위에서 화려하게 피어났다.

시음의 정점은 역시 와인이었다. 맑고 산뜻한 비오니에(Viognier) 한 모금은 미몰레트 치즈와 완벽한 마리아주를 이루었다. 이어 잔을 채운 것은 생소(Cinsault) 레드 와인이었다. 주로 프랑스 남부에서 재배되는 이 품종은 거친 타닌을 부드럽게 길들여주며 화사한 꽃향기를 선사한다. 특히 껍질이 얇아 빛깔이 투명하고 연하며, '칠러블 레드(Chillable

Red')로서 살짝 차갑게 서빙되어 입안에 닿는 느낌이 무척이나 경쾌했다. 거친 타닌을 정제해 주는 생소의 성질처럼, 이 와인 한 잔은 아침부터 빼적거렸던 마음의 모서리를 매끄럽게 깎아주었다.

시음을 마치고 테이스팅 룸을 나서는 길, 내 손에는 기분 좋은 목직함이 들려 있었다. 오늘 우리 부부의 입술을 즐겁게 했던 비오니에와 생소 와인을 각각 한 병씩 사 들고나온 것이다. 이 두 병의 와인은 다가오는 4월 말,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할 때 전달할 깜짝 선물이다.

십수 년 전, 이곳을 먼저 발견해 알려주었던 아들 내외가 아니었던가.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의 부모가 된 그들에게, 부모님이 그 추억의 장소를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하며, 비록 장소는 이전했지만 그 정수만큼은 변함없는 와인을 들고 찾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특별한 감동이 될 것이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쿠닌의 와인병을 보고 환하게 웃을 아들 내외의 표정이 벌써 눈앞에 선연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잇는 것은 거창한 유산이 아니라, 이토록 작고 세심한 취향의 공유와 기억의 대물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의 취기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결들인 로제 와인은 쿠닌의 여운에 비하면 그저 평범했다. 이미 우리들의 감각은 부티크 와인의 정교함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의 목적지는 산타바바라 문화 예술의 심장부인 그라나다 극장(The Granada Theatre)이었다.

1924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이 극장은 1,500석 규모의 홀과 화려한 고전적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정교한 음향 반사판이 설계되어 있었고, 높은 천정과 황금빛 장식은 이곳이 거쳐 온 한 세기의 시간을 목직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날의 공연은 마에스트로 니르 카바레티(Nir Kabaretti)의 취임 20주년을 기념하는 'Bella Italia' 무대였다.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오토리노 레스피기(Ottorino Respighi)의 '로마의 소나무(Pini di Roma)'가 시작되었다. 레스피기의 음악은 보티첼리의 명화들을 음악으로 옮긴 '보티첼리 삼부작'처럼 시각적인 색채감이 뛰어난 곡이다.

곡이 종장인 '아피아 가도의 소나무(I pini della Via Appia)'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안개 자욱한 새벽녘, 로마의 고대 군용 도로인 아피아 가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낮은 저음의 리드미컬한 파동. 그것은 분명 수천 명의 로마 군단(Mighty Roman Legion)이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소리였다.



땅을 흔드는 듯한 목직함 고동소리는 서서히 크레센도(Crescendo)를 이루며 거대한 금관악기의 포효로 이어졌다. 영광의 불꽃 속에 카피톨리움 언덕으로 진격하는 무적 군단의 기개와 승리감이 그라나다 극장의 뛰어난 음향 시설을 타고 객석 구석구석을 진동시켰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감동을 이른바 'D class'라 불리는 시골 교향악단에게서 받게 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역사 깊고 아름다운 극장의 공명 속에서, 오늘 하루의 피곤함은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길, 품에 안은 와인 두 병이 기분 좋게 찰랑거렸다. 4월의 어느 저녁, 아들 집 식탁 위에서 따질 이 와인들은 오늘 우리가 느꼈던 산타바바라의 햇살과 레스피기의 웅장한 선율을 다시금 불러올 것이다.

디즈니 홀 앞에 다시 도착했을 때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2026년 3월 29일은 그렇게 진한 포도향과 장엄한 선율, 그리고 아들 내외를 향한 설레는 마음이 어우러진, 내 생의 잊지 못할 한 편의 교향곡으로 기록되었다. 인생이란 어쩌면 이런 사소하고도 아름다운 조각들을 모으는 과정이 아닐까. 내 곁의 소중한 인연들이 준비한 미덕에 집중할 때 삶은 비로소 예술이 된다.

이 여행의 조직자이고 안내자인 마에스트로 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계탑 4월호 편집회 초록



Zoom으로 예정대로 4/11/2026 동부시간 오후 1시에 열렸다. 참석자는 노영일, 서윤석, 서량, 서인석, 박은경, 광귀병 사무장, 황창근 사장이다. 원고 검토 전에 이원택 전 편집장의 작고에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에서도 화환을 보냈다는 보고가 있었다. 고인은 2015-2016 편집장 시에 함춘미주공로상을 편집회 이 름으로 수령하여 상금을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주선한 훌륭한 행정가이기도 했다. 시인으로도 국내외로 알려진 고인을 기리는 조사를 박진국 동기와 현 편집장이 썼다. 들어온 원고의 분량은 충분하였고 이어서 열린 대의원회, 이사회가 끝나면 사무적인 사항에 맞게 동창회 주소 등 인쇄물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원고의 분량이 너무 긴 것은 나누어서 사용하기로 했다. 서귀숙 편집위원은 직장 일이 겹쳐서 이번에는 참석을 못했다. 다음 편집회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로 예정이다. 젊은 동문들과의 인터뷰와 10문10답 시리즈에서 원고 수정을 하느라고 수고한 박은경 위원의 사진 촬영 후 회의를 끝냈다. 글: 편집장 서윤석

농담 골목

- 현명한 남자: 여자 생일을 기억하고 그녀의 나이는 기억하지 않는 남자
- 명정한 남자: 여자 나이만 기억하고 그녀의 생일을 매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 아무도 풀지 못하는 불가사의
- 개구리의 뛰는 방향 / 럭비공이 뛰는 방향 / 주식 가격의 움직임 / 여자의 마음 / 정치인의 속 마음
- 어느 부부의 다이어트
- 어느 중년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냉장고 속에 몸매가 늘씬한 모델 사진을 붙여놓았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후 내내는 눈에 띄게 살이 쭉 빠졌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녀의 남편은 그 반대로 살이 찘다. 그 모델이 보고 싶어 수시로 냉장고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 이덕송 (남가주)

<전면에서 계속> 부각되었었는데 Francis Scott Key가 그 전승의 감격을 시로써 남기고 그 뒤에 그 사람의 시가 Star-Spangled Banner 미국 국가의 가사가 되었다기에 그곳에 들어가 monument를 꼭 보고 싶었지만 그 희망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10월 초였지만 날씨가 온화하고 화창해서 Harbor의 물과 동상들과 skyline 이며 작은 상점들을 여유 있게 걸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에는 바닷가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 이름난 시푸드 레스토랑 Michaels에 물러가서 Maryland Blue Crab의 별미를 즐겼습니다. 블루크랩과 맥주를 가운데 놓고 언제나 그림던 동기와 부인들과 마주 앉아 있었으니 짧은 순간이나마 우리들은 또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조금 쉬 다음 저녁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신라가든으로 갔습니다. 신라가든은 Ellicott City에 있는 한인식당인데 음식도 훌륭했지만 환담과 웃음으로 이날의 감격은 더 깊어졌습니다. 호텔에서 다시 만난 우리들

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못 다한(?) 이야기를 이어 갔는데 우리의 명창 소프라노 미세스 정두현께서 "옛동산에 올라 (이은상/홍난파)"를 불러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 중 가장 활발하신 미세스 진창건께서 나오셔서 고사 성어를 따서 짧은 시를 짓는 그룹 게임도 진행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벌써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모두들 아침상에 둘러앉아 못다 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침 비행기 시간에 맞춰 부라부라 마지막 인사에 바빴고 그러면서 올해의 모임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사흘이었지만 무척 반갑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고 크게 아픈 사람도 없었으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크게 마음먹고 참석하신 동기와 부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임의 성공과 품위 있는 진행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주신 고의걸 군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들의 이야기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군의학교



서윤석(68, 버지니아)

1951년 6.25전쟁 중에 간호생도 과정으로 시작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문집이 2011년에 발간되었다. 준장 박명화 교장님이 본인에게 보내온 그 문집을 읽고 오랜 시간 간직했던 감동(感動)을 정리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본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68년 봄에 47기 육군 군의 후보생으로 대구 효목동에 위치한 군의학교에 입대했다. 우리 동기들은 3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되었다. 전국에서 온 레지던트를 끝낸 선배들도 포함한 600여 명이 모두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역 군의관이 된 것이다. 군진의학 을 위하여 정체성이 있는 숙달된 교관요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그 해에는 졸업하는 후보생 중에 8명이 선정되어서 3년간 그곳에서 교관으로 복무하는 기회가 있었다. 본인도 그 8명 중의 하나였다. 전남의대 출신인 박종일, 부산의대 출신 배기원과 박수하, 경북의대 출신 박찬훈, 조석재, 이창준과 정태수 그리고 서울의대 출신 서윤석 이렇게 모두 8명이 3년간 같이 교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이외에도 교관으로 많이 있었는데 서울의대 선배로는 월남전에서 돌아온 김의신 대위와 (만년) 중위인 박송규 선배가 있었다. 이분들 이외에도 10여 명의 군의관, 의정장교, 보병장교, 간호장교가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육해공군의 위생병과 해마다 봄이면 들어오는 군의 후보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그리고 1968-1969년 군의학교 교장에는 월남전에서 돌아온 서울의대를 55년 졸업하신 대령 김종호 님이었다. 이분은 사관학교를 나온 보병 장교였다가 6.25사변 시에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후 의대로 편입하여 의무병과로 바꾼 분이다. 이곳 의무사령부 영내에는 제1육군 병원, 군의학교, 의무시험소, 국군간호학교가 함께 있었다.

군의학교는 군의 후보생을 교육하여 군의관으로 임관하고 그 이외에도 육해공군 위생병들에게 응급처치를 교육하는 곳이다. 또한 일부의 교관요원은 국군간호학교 교육에도 관여했다. 임상은 병원 측에서 맡았지만 기초의학을 맡은 박종일 대위의 부탁으로 본인도 해부학을 강의한 인연이 있었다. 군의학교에서는 명강사로 알려진 임석순(58년 졸업) 선배, 박송규(65년 졸업) 선배들이 떠난 후에 본인은 그분들의 강좌를 이어받았다. 바로 대량전상자 관리(Mass Casualty Management 즉 Triage) 과목이었다. 그 무렵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하에 전쟁 시에 요구되는 전국 고등학생을 위한 지침서를 국방부에서 발행했는데 의학 부분에서는 대량전상자 관리의 Chapter를 내가 담당했다. 응급처치 분야는 능력이 특출한 박찬훈 교관이 썼다. 당시 다른 병과도 비슷하겠지만 교관들이 대부분 UN 군들의 교재에서 배워 온 것이었다. 대량전상자 관리의 동시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천재지변, 핵 전쟁, 치열한 전투, COVID-19 등의 응급상황

에서 한정된 의료 능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구하려는 대책이다. 이 과목을 나는 기성 장교들이나. 군의 후보생, 위생병들에게 가르쳤다. 현재에도 이 이론을 국내외의 모든 민간인 큰 병원의 응급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군진의학에서 전투요원들에게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하겠다

오늘 이 글은 과거를 모르는 젊은 세대에 중요한 과거사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차츰 잊혀가는 그러나 사실에 근거를 둔 이야기들이다. 1951년 6.25사변 때에 창설된 간호교육과정에서 임관되어 현재까지 전투지역이나 군 병원에서 봉사하신 수많은 간호장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다.

서울의대 선배님 중에서 1950년 6.25 당시 졸업하신 학년은 전쟁 중에 많이 실종되거나 사망하셨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후에도 육군에서는 의사의 부족으로 입대하면 전역을 못하고 모두들 7-8년간의 군의관 시절을 보낸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군사혁명을 주도한 군인들이 정계에 나가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일시적으로 생겼다. 제대를 오랫동안 못하던 군의관들 중에서도 (1962-1964년경) 그들처럼 국회의원으로 선거에 출마를 하고 제대를 했던 우스운 이야기도 있었다. 현재 100세가 되신 당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1950년 졸업 나수섭 선배님이 메릴랜드에서 증인으로 계신다. 이런 분들과 같이 지난 60년간 사변 중에, 또 그 후에, 월남전, 이라크전, 레바논 참전 등 전 세계 각지 전투지역과 국군병원에서 군의관과 함께 부상병을 돌보던 나이팅게일, 간호장교님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이 접하게 되었던 대구 효목동 1968-1971년간의 간호장교 후보생들의 이야기가 그 하나이다. 푸르고 검은 생도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쓰고 영내에서 줄을 지어 지나가며 거수경례로 인사하던 그 젊은 학생들을 나는 기억한다. 당시는 중위 월급이 100불이었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웠던 때이고 달러를 벌기 위하여 서독 광부가 탄광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고 간호사들이 파견되고 군인들이 베트남 전투에 참가하여 싸우던 어려운 때이었다. 그래도 그때 영내에서 간호 생도들은 크리스마스 때면 모여서 음악회를 열었다. 그 젊고 아름다운 모습들과 그들이 불러주던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소리가 지금도 해마다 12월이 되면 잊히지 않는다. 바로 그 학생들이 교육을 끝내고 간호장교가 되어 나라를 위하여 봉사했던 것이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임관되어 지난 반세기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온 천사들이었다.

개교 60주년 기념 책자에서 한 졸업생의 부군이 되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장동하 시인이 쓴 한 편의 시를 소개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50년 8월 경기도 광주에서 피난을 못하고 쓴 시인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있

지만 본인에게는 다음의 시가 더 자주 읽고 감동을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대! 대한민국의 역사여!
장동하 (간호장교 대위 김연재의 부군)
공군작전사령부, 시인

여기 하나의 역사가 있다.
이 역사는 하얀 손, 가녀린 몸으로
불과 서너 장의 백지 위에 쉬이 쓰이는
간단한 역사가 아니다
이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손으로 쉽 없이 쓰여져
끊임없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역사다
하여 마지막 장도 마침표도 없는
영원한 역사다

이 역사는 탱크와 전차의
거침없는 행진으로 쓰이는 역사도
전투기의 비상으로 창공에 쓰는 역사도
과도를 가르치는 군함으로 쓰는 역사도 아니다
하나 이 역사는 60년 전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
절망과 슬픔으로 신음하던 내 조국 내 겨레의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그대들의 몸을 녹여 어둠 불 밝혔던
희망의 역사다

인간은 불같은 욕망으로 죄를 녹여
제 살을 깎아내는 무자비한 창과 칼을 만들고
제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를 손에 들었지만
신은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녹여
인간을 구하는 생명의 무기를
그대들의 손에 쥐어주었으니
이 역사는 신을 대신하여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다

이제 그대들이 쓰는 이 뜨거운 역사는
우리 한반도를 넘어, 이미 저 멀리
베트남으로, 이라크로, 서부 사하라로 떠났고
카르키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지구촌 구석구석에 널리 펼쳐져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대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몸소 조국의 등불이 됨으로써
또 하나의 역사를 쓴다
도서관 한 귀퉁이 근사하게 자리 잡은
양장본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처럼
잠자고 있다가
먼지를 툭툭 털어내어
펼쳐보는 해묵은 역사도
누가 대신하여 써주는 메마른 역사도 아닌
그대 스스로 살아 움직여
조국의 피가 되고 심장이 될지니
그대여 이제 그대가 역사다!

그대여! 그대가 대한민국의 역사다!

나가는 글;
1968년 1월에 김신조 사건에 있었던 이후로 군의관 훈련이 힘들어졌다. 유격 훈련까지 받아야 했고 정부는 월남전에 이미 전투병력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필요했다. 1967년에는 서울의대를 65년 졸업한 김수현 해군 청룡부대 군의관 (후일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그의 이름으로 경상남도 진해 해군 병원 뜰에 충혼비를 세웠고 전투 합정을 김수현함으로 명명했음)이 전사하기도 했다. 본인은 입대하기 전에는 서울의대에서 항상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모든 면에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했었는데 입대 후에는 그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타 대학 졸업생들에

게서도 우리보다 월등한 우수한 점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차츰 겸손해졌다. 우리는 서로 배울 점이 많이 있었다. 그래도 본인은 행운아였다. 군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많은 서울의대 선배님들이 주신 은혜를 입으면서 군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김종호(55년 졸업) 교장이 그 중 한 분이다. 경북의대 출신의 정호용 의무사령관(1/22/1968-2/25/1970) 후임으로 온 선배 김병국 의무사령관(2/25/1970-3/7/1972) 님도 본인을 모터사이클 뒤에 태우고 영내를 돌면서 아껴 주셨다. 음악과 철학에 박식했던 명강의로 유명한 임석순(58년 졸업, 정신과, 후일 북 미시간 거주) 대위, 링컨 대통령처럼 생긴 박송규(65년 졸업) 선배, 또 김종호 교장의 오른팔 김의신(66년 졸업) 선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대학 동문은 아니지만 훈련을 같이 받은 평생 친구 효자효부 부부인 박수하 박사를 비롯한 국내외 47기 군의관들은 모두들 좋은 친구가 되었다. 군의학교 교장과 의무사령관을 역임한 전남의대 졸업한 방사선 전공 리혜수 장군님도 훌륭하셨다.

3년간 본인은 많은 의대 동기(김명석, 임공세, 신용계)는 물론 선배(이병철, 조석신, 서좌일 해군 중대장)와 해마다 들어오는 많은 전국의 선 후배 군의 후보생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 3년 3개월간의 군의관 생활은 실세상을 가르쳐 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본인은 늘 그 후에도 국내외 의료계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이 인생의 행운이었다.

무엇보다도 전역 시에 받은 휘장과 간호 생도들이 그 적은 월급에서 모아서 만든 정성이 담긴 선물도 받게 된 것을 감사한다. 아직도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도 못하는 것이 평생 참 미안하다.

2012년 1월 박명화 교장님한테서 온 문집을 받고 혹시 문학에 관심이 있는 생도들을 위하여 2012년부터 11년간 월간 시문학 잡지를 학생 도서관에 보냈다. 그런데 그 잡지를 발행하시던 6.25사변 시 소대장으로 백마고지에서 부상을 입고 제1육군 병원에서 소생되어 퇴원하여 93세까지 시인으로 생존하시던 문학계의 거인 심산(心山) 문덕수 시인과 그 부인김규화 시인이 3년

전에 작고하시었다. 그분들이 50여 년 이어오던 시문학 잡지가 2023년 2월 호로 종간되어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 작고한 문덕수 님의 문학관은 경상남도 함안에 있으며 많은 문학행사가 그곳에서 열린다. 이분들은 국군간호사관학교가 1996년 이전하여 현재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외의 국립대전현충원 장교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전쟁과 평화와 문학이 얽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을 애달프고 무상하게 느끼게 하지만 그런 중에도 간호장교님들의 공헌만은 아름다운 역사로 남아 있을 것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그 생도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1) 국군간호학교 교장한테서 1971년 본인의 전역 시에 받아서 55년간 간직한 휘장 (2) 박명화 간호사관학교 교장이 2012년 보내온 인사말과 간호사관학교 연혁 (3) 1969년 초여름 48기 군의 후보생과 같이 치렀던 대량전상자 관리 훈련 장면 (4) 훈련을 참관하려고 온 당시 채명신 2군사령관, 정호용 의무사령관, 김종호 교장, 박상빈 제1육군병원장 (5) 1969년 초여름 군의학교 의무실장직을 인계하고 떠난 김의신(66 졸업) 대위와 서윤석 중위 (6) 국군간호사관학교 창립 60주년 문집의 책 표지 (7)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백범 김구 암살사건 (4)

미국과 소련은 민족주의자를 원하지 않았다.

운 기 철(71, 남가주)

충칭 입정 시절: 김원봉과 김구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인 충칭으로 이사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장제스의 김구와 임정에 대한 원조는 급증했다. 그런데 충칭으로 이사한 임정과 그 가족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금이 아니면 살길이 없었다. 김구는 광복군을 조직하여 대일 군사작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김구는 장제스에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원조를 요청했다. 장제스는 원조의 조건으로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과의 협력을 요구했다. 말하자면 중일전쟁 중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한 예를 따르라는 요청이었다.

김원봉은 1919년 만주 간도 길림성에서 폭력투쟁 조직 의열단을 결성하여 요인 암살과 주요 기관 폭파를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원봉은 1926년 황포군관학교 4기생으로 입학하였다. 장제스가 교장이었고 저우 엔라이가 정치부 주임이었다. 동기생에 등걸이 있었다. 등걸은 장제스의 측근이 되었다. 김원봉은 등걸에게 의열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등걸은 장제스의 승인을 받아 삼민주의 역행사를 통해서 김원봉에게 매달 3000원씩 지원했다. 삼민주의 역행사는 국민당 정부 비밀 정보기관인 남의사이며 등걸은 남의사의 서기였다. 김구가 매달 5000원을 지원받기 전이었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와 임정 요인 1진 15명이 미군정이 제공한 C-47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출발 김포 공항에 오후 4시경에 도착했다.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군정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는 이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미군 장교 몇 명이 비행기에 올라와 임정 요인들을 안내했다. 비행기 안에는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 국무위원, 김상덕 문화부장, 엄항섭 선전부장, 유동열 참모총장, 김진동 비서, 유진동 의무관, 장준하, 이영길, 백정갑, 윤경빈, 선우진, 민영환, 안미생 수행원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비행장에는 국방색 세단 2대, 엠블런스 1대, 지프 10여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엠블런스에 짐을 싣고, 2대의 세단에 김구와 김규식이 각각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프에 나누어 타고 경교장으로 향했다. 일행이 한강 인도교를 지나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오후 5시가 좀 넘어서 경교장에 도착했다. 경교장 현관에는 눈이 덮여 있었다. 미군 3명이 무전기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행이 도착하자 철수했다.

경교장은 금광으로 거부가 된 최창학의 별장 겸 집이었는데 임시정부 시절 김구와 같이 일했던 김석환이 최창학을 설득하여 김구의 거처 겸 임정 사무실로 쓰게 했다고 한다. 김구는 서대문 근처에 있는 경교교라는 다리의 이름을 따서 왜색이 짙은 건물명을 경교장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임정 요인들은 충무로의 한미호텔에 묵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오후 6시경 김구의 도착을 라디오 방송으로 “오늘 오후 김구 선생 일행 15명이 서울에 도착

했다. 오랫동안 망명한 애국자 김구 선생은 개인 자격으로 서울에 돌아왔다”라고 알렸다. 하지는 ‘개인 자격’임을 분명히 했다. 김구의 귀국을 알게 된 많은 시민, 기자, 각계각층의 요인들이 경교장으로 몰려왔다. 시민들은 “김구! 임시정부!” 하고 외쳤다. 이승만이 찾아왔다. 1921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상해에서 만난 지 25년 만의 재회였다. 서로 기뻐하며 포옹했다. 다음날 오전 김구는 돈암장으로 가서 이승만을 만나고 둘은 미군정청을 방문하여 사령관 하지 중장과 군정장관(국무총리 격) 아놀드 소장을 예방했다. 경교장 경비는 광복군 국내 지대가 맡았다. 오광선 장군 지휘 하에 본부가 태고사(현 조계사)에 있었다. 경찰 복장을 하고 경교장 현관 대문 옆에 있던 작은 집에 거처하며 초소를 지켰다.

장제스는 김구가 떠날 때 중국군 연락장교와 무선사 3명을 붙여 주었다. 귀국 후 이들은 중국과 무선 연락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정이 중국으로 무선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해서 중국과의 교신이 중단되었다. 장제스는 독립된 한국을 그의 영향권으로 두려고 했고 미군정은 당연히 장제스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날 오후 8시 경교장 응접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들이 육성 방송을 요청했다. 미군정은 거절하다가 2분 동안의 육성 방송을 허용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27년간이나 꿈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 강산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 감개 무량합니다. 나와 나의 각원 일동은 한갓 평민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2분 동안에 할 수 있는 말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귀국하자마자 김구는 1896년 3월 지하포에서 일본인을 살해하여 투옥되었을 때 구명운동을 했고 탈옥을 하게 도와준 김주경,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가족을 찾았다. 윤봉길 의사의 아들 윤종씨와 이봉창 의사를 뒷바라지한 조카 딸 이은임씨를 만났다. 김주경의 아들 김윤태 씨는 이북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강화에 사는 친딸과 친척 몇 분은 만날 수 있었다. 김주경이 아니었으면 당시에 김구가 살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마 김구는 김주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김구는 항상 이봉창과 윤봉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김구는 이은임에게 경교장 뒤 평동에 기와집 한 채를 사주었다. 남편이 그 집에서 이발관을 운영했다고 한다. 남편이 사망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이은임을 김구의 차남 김신이 공군 문관으로 취직 시켜 주었다. 김신은 당시 공군 장성이었다. 윤봉길 의사 가족들에게는 중국 기독교청년회 총무인 미국 선교사 피치 박사를 통해 미군정으로부터 건설회사를 불하 받게 했다.

김구는 미군정에 저항하고 미군정에 협조하려는 정치인들의 암살사건의 배후로 의심받았다.

김구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물러나면 우리 민족은 주권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조국은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고 미군 점령지인 남한의 현실은 참담했다. 국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친일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다시 등용되어 권력을 잡고 있었다.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귀국 직후 김구는 이승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11월 24일 내외

신 기자 회견을 했다. 김구는 “내가 이 박사보다 더 나은 수단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서는 잘못이요. 다만 근 30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돌아온 터이므로, 현 정세에 어둡고 정세를 모르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소.”라고 했다.

이승만의 초대로 12월 2일, 김규식과 함께 돈암장을 방문하여 2시간 동안 회담했다. 1945년 12월 19일 서울운동장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헌 환영대회가 열렸다. 15만 명이라는 전대미문의 인파가 모였다. 한 달 전에 입국한 이승만을 압도하는 인기였다. 오후 2시 20분 조선생명회사 2층에서 김구가 가운데 서고 좌우에 이승만, 이시영, 김규식, 류동령 등이 창을 열고 환영 행렬을 맞이했다.

해방 후 김구, 이승만 등 민족 지도자들은 미군정이 일본 행정부와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본국으로 보내는 과도기가 지나면 한국 사람들에게 주권을 넘겨주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5년 12월 28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영국, 소련 삼국의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을 5년 동안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김구와 이승만은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은 “신탁통치를 무조건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신탁통치의 선행 조건에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임시정부”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 임시정부와 미소가 상의해서 한국 신탁통치에 관한 제반 문제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고 이해했던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 등은 반탁운동에서 이탈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탁통치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우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민중은 단숨에 찬탁은 매국노요 반탁은 애국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반탁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로 매도되었다.

김구는 신탁통치를 극렬하게 반대했다. 12월 29일 임정 주최로 경교장에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좌, 우, 중간과 예외 없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격양되어 있었다.

27년간 중국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싸웠는데 고국이라고 돌아와 보니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서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참았다. 잠깐 있다 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한다니, 김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다. 김구는 이 대회에서 울분을 토했다. “우리가 왜 서양 사람 구두를 신느냐 짚신을 신자. 양복도 벗어 버리자”. 김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멘 소리로 “우리 민족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탁통치만은 받을 수 없으며 우리는 피를 흘려서라도 자주독립정부를 우리 손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절규했다. 김구는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자는 매국노라고 규정했다. 반탁은 미군정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었다. 한반도 신탁통치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처음 제안했으며 소련은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안은 미국 측의 신탁통치 안과 소련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국인들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이 그 첫 수순이었다.

12월 29일 송진우와 김구가 마주 앉았다. 송진우는 신탁 안에 반대하여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진우는 김구에게 미군정이 중경 임시정부의 통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군정과 대립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김구는 송진우가 미군정 치하의 후견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구는 오히려 송진우를 설득하여 반탁운동을 하게 하려 했다. 밤새 토론이 계속되었으나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송진우는 12월 30일 새벽 4시에 경교장을 나와 원서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막 잠이 들은 새벽 6시에 한현우 일당의 총에 맞아 절명했다. 해방 후 첫 요인 암살 사건이었다. 한현우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 역사학과 과장을 지냈던 브루스 커밍스, 조병옥, 하지 중장은 김구를 배후로 지목했다.

송진우가 암살되던 날 1945년 12월 30일, 김구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하지에게 보냈다. 반탁운동을 기반으로 임정 법통론을 앞세워 미군정을 임정이 접수하여 통치권을 장악하려는 운동의 시작이었다. 김구와 임정은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위원회의 9개조 행동 강령에는 임정의 절대 수호와 외국 군정 철폐 요구가 들어 있었다. 12월 31일 열린 반탁 시위 대회에서는 “3천만 전 국민이 절대 지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의 정부로서 승인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군정이 ‘우익 시위의 날’로 규정할 정도로 12월 31일 반탁운동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국민 총동원 위원회는 전국 총파업을 결의했다. 신익희 임정 내무부장은 국자 제1호와 제2호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문에는 ‘현재 전국 행정청 소속의 경찰 기구 및 한인 직원은 전부 본 정부 지휘하에 예속하게 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의 경찰관 대표들이 김구의 지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미군정청의 한인 직원들도 이에 따르겠다고 했다.

미군정은 대단히 당황했다. 하지 중장은 이를 미군정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1945년 12월 31일 경무국 국장 내정자였던 조병옥을 미군정청으로 불렀다. 하지는 “군정을 접수하려는 임시정부 요인들을 즉시 처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날 저녁 방송할 원고 전문을 보여 주었다. “원래 중경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33명은 한국에 입국할 때 미군정의 법과 질서 유지에 복종하겠다는 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빙자하여 미군정을 접수하고 미군을 축출하려고 획책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획책과 접수 운동의 여파로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오늘 밤 10시를 기해 인천 소재 포로수용소에 수용하였다가 중국으로 추방하겠다.”

하지는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조병옥은 너무나 놀랐다. 그는 임정 요인들은 우리 민족사에 찬연히 빛나는 3.1운동 이래 자유독립의 혁혁한 경력을 가진 분으로 민족의 자유 정치 운동의 봉화를 든 민족운동의 투사이므로 이 애국자들의 국외 추방은 미군정에 협조하는 한국인의 민심을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시에 미군정은 한국에서 실패로 끝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그런 조치는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 중장을 달랬다.

하지 중장은 조병옥의 충고를 받아들여 임정 요인 추방에 대한 방송을 취소했다. 그리고 하지는 조병옥에게 김구를 면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병옥은 하지 중장에게 “나에게 김구와 협상할 전권을 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 중장은 이를 쾌히 승낙했다. 12월 31일 저녁 조병옥은 경교장에서 김구와 마주 앉았다. 조병옥은 김구에게 진언했다.

“주석께서 입국하실 때에 독립군 한 명도 대동하지 못하고 정치자금도 한 푼 없이 미군정에 협력하겠다고 맹약한 이상 현재의 임정이 계획하고(다음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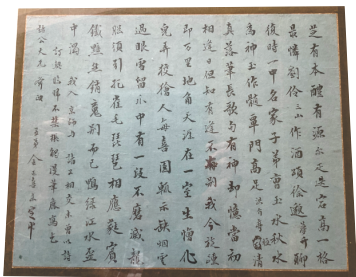


秋史를 추억하다

김병오 (69, Haymarket, VA)



나의 서재 오른쪽 벽에는 오랜 세월 눈길이 마주치는 작은 액자가 있다. 푸른색 화선지에 행서(行書)로 흘려 쓴, 사연 모를 한 장의 편지가 금사(金絲)에 둘러져 표구되어 있다. 추사 김정희의 실물본으로 추정되는, 비교적 고급스럽게 표구된 액자의 정체는 예나 지금이나 비밀에 싸여 있다. 고풍스럽다고는 하지만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세월의 먼지가 앉고 변색되어, 마치 작은 산사(山寺)의 단청처럼 고拙(古拙)하다.



그때가 갓 수련의 시절을 벗어난 해였고, 여전히 아파트 월세를 내기조차 버겁던 시기였다. 다른 기억은 희미해도 월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거금을 치렀다는 충격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다. 70년대 말쯤이었다. 나에게 슬픈 표정으로 액자를 양도하신 분은 유학자이었던 우(禹) 선생님이었다. 국회도서관에서 평생을 일하고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다. 흔히 말하는 '범 없이도 살 사람'의 전형이었고, 자비(自費)로 한중사전을 몸소 편찬하셨던 초야의 인문학자이셨다. 갑자기 가정에 우환이 끼고 건강도 좋지 않아 세간을 쫓아다니던 중에 친목회 막내 격이었던 집사람에게 말을 건넸던 모양이었다. 그 부부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내는 비단보에 담긴 액자를 두말없이 들고 왔다. 돌아오는 길에 돌이켜 난감해하며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어제만 같다. 당시 수련이 끝나가는 무렵의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가난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액자 속 편지는 추사 김정희의 친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정희의 생가가 충남 예산이었는데, 그 집을 가까이 드나들던 우 선생님의 친척 한 분이 유품 몇 점을 어렵게 얻어내 그중 한 장을 표구했다는 것이었다. 우 선생님도 예산 출신이셨다. 50년대 전쟁 후 세상의 난리가 겨우 진정되기 시작하던 무렵의 일이라고 했다.

서울 미술대학장이셨고 월북 작가인 김용준의 수필을 보면, 1930년대의 적박한 시절에도 추사의 글씨만은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저마다 구입하려고 눈을 밝혔다고 한다. 제가(諸家)의 서법을 모아 한 경지를 이름으로써 천변만화의 조화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보았을 것이고, 이를 소유한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후광을 입어 품격이 더욱 높아 보였다는 것이다. 그만큼 위작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어찌지 먹빛이 좋지 않고 바를 정(正) 자의 가로 획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의심은 끝없이 증폭되어, 내내 고

결한 맛도 고가의 가치도 입맛도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예술의 세계에는 애초에 명확한 기준선이 없다.

문외한의 눈에도 나의 완당(阮堂) 행서는 처음부터 신비롭지 않았다. 그야말로 먹빛도 흐렸고 글자 크기도 일사불란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두 군데나 글자가 성의 없이 흐린 먹으로 고쳐져 있어 눈을 의심케 했다. 물론 제목도 없고 그 많다는 낙관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종이 색깔은 신묘한 푸른 하늘색이어서 1800년대의 지질(紙質)로 평가하기가 조심스러웠다.

한국 문화사의 거인으로 평가되는 추사 김정희는 1786년에 태어나 1856년에 서거하셨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관리, 금석학자, 화가, 실학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놀랍게도 편지의 끝에 가서는 '제공대형(諸公大兄)' 운운하며 인사말 끝에 '김정희' 세 글자가 뚜렷이 보여 불안하면서도, 누가 보아도 추사의 진품임이 역력했다. 그의 호는 완당, 추사를 비롯해 알려진 것만 160여 개이며, 한 연구가에 의하면 무려 5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분의 사정과 뜻은 잘 모르겠으나, 그 많은 호 중에서 이 편지의 끝에는 호가 아닌 자신을 낮추는 뜻의 한자만을 기입하고 '김정희' 석 자에 인색하게 도장을 아끼셨다. 그 외에도 조선 당대 최고 문장가로서의 오만함이나 날카로움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거나 전혀 고(?)하지 않은 글씨체라는 사실이, 이것이 진품이 아니라는 방증으로 점점 굳어져 갔다.

그렇다면 "괴하지 않으면 글이 아니다"라고 했던 기백 충천하던 추사의 이 연약한 필체의 진실은 무엇이였을까. 의문이 들 때마다 나는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퍼기기도 했다.

정사(政事)를 마치고 돌아온 피곤한 어느 날 저녁, 황춧불 켜진 서탁에서 먹을 갈며 시작된다. 먹향을 느끼며 적당한 세필을 찾아 붓을 흥건히 적신 그는 북경에 머물던 시절 구입해 온 푸른 종이를 꺼내 든다. 머릿속은 해결되지 않은 안동 김씨 세력과의 알력으로 복잡했고, 암행어사 시절 죄를 물었던 이들이 양심을 품고 칼을 들이대고 있어 시절은 어지럽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힘찬 획으로 첫 행을 나아가다 생각이 흔들려 오자가 나고, 그만 두려다 말고 멈추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일단 내용이나 가다듬는 행서의 서식을 취한다. 북경의 주루를 돌아다니며 우정을 나누던 스승과 친구들이 그림과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소식을 묻는다. 글 속에 여럿의 중국인 이름이 등장하고 해석 불가의 내용이 가득 차 있었다. 이 글의 내용을 모르고 지내던 긴 세월 동안, 나는 이 서한문의 글씨가 삶의 기복을 겪던 시기 혹은 병중의 글씨일 것이라 추측해 왔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 서적과 고서화를 섭렵하며 그의 행서 필법을 유심히

살펴보고 가까이 비교도 해가며 나름의 진위를 판별하려 노력을 기울였지만, 언감생심 될 법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풍정만리 미국에서 말이다. 비교할 만한 행서 편지체 중 단연 으뜸은 <세한도(歲寒圖)> 우측 상단에 제자 이상적을 칭송하며 정성스레 쓴 아름다운 글이다. 나의 소장본과 상당 부분 비교가 되는, 무척 공들여 쓴 힘 있는 필치다. 그때마다 분명한 것은 필치의 특이한 감각이 주는 동일성이다.

한편으로 열거한 여러 부정적 징표들은, 생각하기에 따라 온전히 진품임을 시사하는 강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미련도 끈질기게 남았다. 나로 하여금 끝내 '헤어질 결심'을 단념케 한 사실들을 열거해 본다.

"추사 김정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라고 평한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불세출의 천재였고 비운의 인물이었다. 추사 김정희 하면 흔히 '추사체'를 떠올리지만, 추사체라고 불리는 글씨들의 형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추사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더욱이 일상의 소통 방식으로 쓴 서한문의 경우 특별한 재기(才氣)가 표출되는 국면은 아니다. 그럼에도 한 글자씩 획을 쫓아가면 참으로 노련한 붓놀림이 반듯하고 유려하여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었다.

혹시 필력이 약해진 점을 감안하여 만일 이 서한이 그의 노년에 쓰였다면, 외로움에 쌓인 처연한 감정과 허허로움 속에서였을 것이라 추정했다.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하던 삼십 대 초반까지의 커리어는 눈부신 것이었으나, 어느 순간 숙적인 안동 김씨 세력에 밀려 1840년, 그의 나이 55세 때 제주도로 유배된다. 말이 유배이지 당시 상황으로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혹독한 형벌이었다. 무려 9년 가까이 긴 세월이었다. 그것도 젊은 시절 함께 북한산 비봉에 올라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했던 친구 조인영의 특소(特召)로 겨우 얻어진 생명이었다. 유배형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절해고도(絶海孤島) 유리안치(圍籬安置)였으니 말이다.

거창하고 팔목할 만한 대작보다 소박한 숨결이 느껴지는 생기 있는 편지 한 장이 더 진본일 수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낙관이 찍힌 것이 오히려 위작일 가능성이 높거나, 지운 자국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며 위작을 하려는데 구태여 오자를 날카 하는 추정이 진본일 가능성을 높인다는 견해도 팽배했다.

문헌과 구글을 통해 추적하던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글 내용 중에 등장하는 다섯 사람의 이름들이었다. 신통방통하게도 추사의 주 활동 연대인 1800년대와 1850년대 사이 청나라 유명 문인들의 이름이었으며, 당대 청나라 명망가들의 것이었다. 추사가 24세 때인 1809년(순조 9년),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서 2개월여를 체류하며 당대 청나라 학자 및 관리들과 교류했다. 그중에서도 옹방강과 원원 등은 당대 북경 연경학파의 태두(泰斗)들로서 그들과의 교류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 그들은 추사의 천재적 지성과 서체를 발견하고 진정성 있는 교

류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그들은 추사의 금석학과 고증학 지식, 번득이는 재기에 감탄했다고 한다. 이 편지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추사와 연경 학계의 관계가 긴밀했음을 단언할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한때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이 솟구쳤다.

50여 년이 지난 최근에 이르러서야 편지 행서의 내용이 서서히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작년 가을 우연히 수목원 은행나무숲에서 만난 대만 출신 여인과의 만남이 그 단초였다. 나의 전후 사정을 들은 그녀는 다음 날 구글을 통해 얻은 믿기지 않는 많은 정보를 이메일로 전해 왔다. 청나라 문헌들에서 발췌한 내용이였다.

꼬리를 물던 의문은 작년 고국 방문 길에서 대부분 해소되었다. 청나라 문헌에 기초한 정보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내가 소장한 글은 추사가 북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바로 전날 청나라 문인들이 열어준 환송연에서 읊은 7언시의 후반부였던 것이다. 놀랍게도 과천에 있는 추사박물관에는 이 시의 전반부가 소장되어 있었다. 매우 유사한 글씨체에 두어 군데 더욱 거친 방식으로 고쳐 쓴 자국이 있는, 같은 크기의 액자였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일까. 박물관의 것은 황토색 종이였고, 내 것은 푸른 종이였다. 알 길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평소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북경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당시에 쓴 자신의 시를 여러 색깔의 귀한 종이에 틈틈이 옮겨 놓았던 말인가 추측해 본다. 아니면 후대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복사해서 시장에 뿌렸던 말인가 씩씩한 추측도 해본다. 결론은 아직도 그 진위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만나 본 학예관들은 약간의 관심과 의구심, 그리고 무성의로 일관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얻은 문헌 정보에 의하면, 당시 청나라 문인들이 시를 쓸 때 푸른색 **청전지(靑箋紙)**를 유행처럼 사용했고, 추사가 북경에서 귀국할 때 이를 한 권(櫃) 가득 가져와 평생 아껴 쓴 것으로 알려져 내 소장본에 대한 일말의 확신을 더해주었다.

이제 행서의 진위나 추사체의 소유에 대한 열망은 내 의중에 없다. 다만 신기루처럼 맺고 끊어지는 고졸한 글씨 속에서 그의 인품과 숨결, 그리고 그의 형안(炯眼)의 자국을 오래도록 상상하고 싶을 뿐이다. 그는 혹독한 시련을 뒤로하고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며 마지막 4년간을 과천 한강변에서 유유자적했다.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생애의 기력을 다해 봉은사 경관전에 그의 풍상을 닮은듯한 명작 '板殿' 두 글자를 편액으로 남긴다. 숨을 거두기 사흘 전이었다. 거침없으면서도 기교를 감춘 천진무구한 필치에 나 역시 대책 없이 매혹된다. 어린 시절 찾아가던 독서실 건너 뺨꾸기 울던 봉은사는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퇴색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운이 흔들리던 시절, 조선의 고매한 선비이자 불운의 정치가, 그리고 파격의 예술가였던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위로 나의 미세한 인연을 겹쳐 보며, 이 짧고도 덧없는 생을 조용히 추억한다.

<전면에서 계속> 있는 미군정 접수 운동은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 치하에 붉은 물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공산주의 철재에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이 역사적 단계에 있어서 우리 민족은 미군정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유독립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오니 주석께서는 그 점 심사숙고하시어 한번 하지 장군과 만나 기탄없는 의견 교환을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조병옥의 말을 들은 김구는 하지 중장과의 면담을 수락했다.

다음날 1946년 1월 1일, 김구는 이시영, 신익희, 조소앙, 엄항섭 등 다른 임정 요

인들과 함께 하지에게 호출되었다. 하지만 "나를 속이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자 김구는 이 자리에서 자살하겠다고 들었다. 그러나 결국 김구는 '반탁 시위가 미군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방승하라는 하지의 요구에 동의했다. 다음날 임정 선전부장 엄항섭은 김구를 대신하여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파업을 중지하고 일 터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임정의 운동은 신탁통치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 미군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김구는 반탁에 반대하는 민중의 힘을

빌려 미군정을 축출하고 독립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것은 또 다른 김구의 독립운동이었다. 나라가 없고 군대가 없는 민족의 또 다른 정복자에 대한 항거는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구에 누가 통치자 인지를 분명히 했고 임정의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범통성을 완전히 부정했다.

1946년 2월 1일 김구와 임정은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를 발족했다. 임정 중심의 과도정부 수립이 목적이었다. 2월 13일 비상국민회의는 28명의 최고정무위원회 설치를 결의하고 28명의 최고정무위원을 선발했다. 미군정은 1946년 2월 14

일 이들을 종용하여 최고정무위원회를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민주의원이라고 했다. 의장은 이승만, 부의장은 김구와 김규식이었고 원세훈 등 도합 28명으로 구성되었다. 목적은 미국 군 총사령관이 한국의 과도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노력에 자문 자격으로 협조할 것과 한국의 완전 독립을 실현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었다.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른 수순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대표와 한국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학우들과 랑데뷰

천 양 곡(69, 텍사스)



여행이라! 나이 들어도 소년처럼 가슴이 설렌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먼 곳의 낯선 공간을 향할 때는 더 설레고 두근거린다. 꼬마 시절 선친께서 만들어 주신 큰 연이 공중에 펼쳐질 때 느꼈던 그런 기분이다. 여행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뿐이 아닌 자동화된 일상에서 벗어나 심리적 감각을 조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행하는 동안 뇌의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전전두엽은 잠시 통제와 계획을 내려놓고 쉰다. 연이 바람에 날려 위로 치솟는 것에 대한 호기심, 놀라움, 혹은 연줄이 떨어지면 어찌지 하는 걱정처럼 여행은 전전두엽과 편도체를 동시에 활성화 모드로 만들어 준다.

누가 그랬다. 여행은 하고 싶는데 나이드는 노인이 여행 중 몸이 아프면 어찌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큰일인데, 걱정이 앞섰다는 얘기다. 2025년 끝자락에 함께 여행 갈 의향이 있는가 묻는 학우의 전화에 노인 얘기가 생각나 망설였다. 하지만 하루 지나 예스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가,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비행기 사정으로 계획된 날짜에 가지 못하고 다음 날 새벽 일찍 떠났다. 비행기가 고도 2만 5천 피트 상공에서 7천 피트로 낮춰 착륙을 준비한다는 기장의 안내말이 들린다. 아래를 내려다본다. 타오르는 이른 아침 햇살에 비치는 멕시코시티가 한눈에 보인다. 크고 작은 건물, 기어가는 자동차 행렬, 개미같이 적은 사람 모습, 생물과 무생물 모두 나름대로 하루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듯하다.

멕시코시티는 원래 고대 멕시코의 마지막 제국인 아스텍 왕조의 수도 체노치티틀란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땅이 신성한 곳이니 그리로 가라는 신의 계시를 따라 아스텍인은 고향을 떠났다. 아브라함에게 젓과 꿀이 넘치는 땅으로 가라는 기독교 야후 하나님 명령과 일맥 상통한다. 그들이 큰 호수가 있는 어느 지역을 지날 때 호수가 운데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 이곳이 바로 신이 말해준 땅으로 생각한 아스텍인은 호수물을 서서히 빼내고 왕궁과 신전을 건설하여 신을 섬기며 농사를 짓고 살았다. 멕시코시티는 이렇게 물 위에 세워진 도시다. 지금의 멕시코시티는 약 2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멕시코 수도로 세계에서 큰 도시 중의 하나다.

“배 타고 바다 건너 성스러운 도시 비잔티움에 왔노라”. 20세기 시인 에이츠의 ‘Sailing to Byzantium’의 시 첫 구절이다. 이를 본떠 ‘Flying to Mexico city,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신비의 도시 멕시코시티에 왔다’ 이렇게 중얼거리려 본다. 엘에이, 시카고, 볼티모어, 텍사스 어스틴에 흩어져 사는 69년 졸업 의대 동기 4명의 커플이 신비의 도시, 역사의 도시, 선인장의 도시, 눈물의 도시, 집단 PTSD의 도시, 용광로의 도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멕시코시티의 Galeria Reforma 호텔에서 랑데뷰했다.

조중행 학우는 수술실의 밝은 조명 아래 스칼펠과 포셋을 분주히 움직이며 심장을 열고 닫는 생명의 기술자로, 김윤성 학우는 좁고 어두운 방에서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을 바라보며 진단을 알아맞히는 생명의 예언자로, 김병오 학우는 사람의 숨결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생명의 조절자로, 나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

주는 내면세계의 정비사로 평생을 일했다. 가끔은 칼로 먼저 열고 보는 멍청한 칼잡이, 모니터를 환자로 착각하는 무식한 점쟁이, 혈압, 맥박, 호흡을 주관하는 무서운 염라대왕, 멀쩡한 사람 뇌를 쥐어짜는 가난한 이웃사촌 청소부 같다는 옛장수의 농담 반 진담 반 소리를 들어가며 살았다. 이제 모두 은퇴하여 야인 신세가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지지만 실은 철저한 현실주의 철학자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별 탈 없이 먹고, 내보내고, 걷고, 잠자고 하는 몸 건강, 자식을 포함 타인에게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을 만큼 자기를 지켜 줄 돈 건강 그리고 걱정 불안 잠재우고 어떤 취미에 푹 빠질 수 있는 마음건강, 이 3가지만 있으면 땡이다”라고. 내가 만난 학우들은 3가지 건강을 다 지닌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엔 웃음과 화색이 넘쳐나 세월의 흔적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 일행 8명은 5박 6일 동안 멕시코 시티와 주변 지역의 유적들을 가이드 설명을 들으며 구경했다.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와 신전, 톨텍 제국 전사의 동상, 촛로라 치유 성당, 뿌에블라 대성당, 산토도밍고 성당, 엑스 엔다, 멕시코시티 대성당, 소칼로 광장, 인류 역사 박물관, 과달루페 성당, 프리다 칼로 생활 박물관, 소우마야 미술관 등을 관람했다. 멕시코 시티 여행에 관한 설명과 사진은 구글을 검색하면 자세히 나온다.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으로서 서너 군데의 유적을 소개해 본다. 간략한 소감과 사진 2장도 함께 첨부한다. (사진 위: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드와 아스텍 제국의 인간 공양

멕시코시티에서 한 25마일 떨어진 곳에 테오티우아칸의 거대한 달의 피라미드, 태양의 피라미드와 신전이 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스텍 제국이 이를 발견하고 거인들이 살았던 신들의 도시로 이름 붙였다. 태양신의 피라미드는 높이 약 65미터, 넓이 230미터로 서기 200년 경에 완성된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 두 피라미드 사이에 죽음의 거리라 불리는 넓은 도로가 나있다. 도로의 길이가 400미터가 넘는 것을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중남미에는 크고 작은 피라미드들이 많다. 멕시코 고대인들이 신을 모시기 위해 만들었던 유다. 반면 이집트 고대인들은 제왕의 무덤으로 지었기에 크지만 수는 많지 않다.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신전에도 인간을 제물로 바친 흔적들이 남아 있다.

아스텍 민족은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이 언젠가 사라지면 개인과 집단의 생명이 끝나고 세상이 무너 질거라 생각하여 항상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태양을 영원히 떠있게 하는 힘을 길러 줄 가장 귀한 제물이 사람의 피라고 믿었다. 그래서 높은 피라미드 신전 위에 전쟁 포로로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제사장이 이곳의 명물인 흙 요석 칼로 꺼내 신께 바치고, 흐르는 피와 잘라진 몸뚱이는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다. 피는 대지의 거름으로, 몸은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다 한다.

인간 공양의 흔적은 고대 여러 사회에서 발견된다. 남 아메리카가 자랑하는 아

즈텍, 마야, 잉카 문화에도 존재했다. 특히 아스텍 문명은 종교적 의례와 집단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간 공양을 국가적 행사로 공공연히 시행했다. 물론 행위 자체는 잔혹했지만 우주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안위를 위한 아스텍인의 세계관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양도 거의 200년 동안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만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화형과 물형의 희생자로 만들었던 시대도 있었다. 단지 종교의식과 믿음체계 만으로 문명과 문화의 레벨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톨라(Tula) 지역이 있다. 서기 900년-1150년경 번성했던 톨텍 제국이 있던 곳이다. 톨텍 문명은 깃털 달린 뱀을 숭배하여 피라미드와 신전을 지었고, 전쟁을 좋아해 4미터나 되는 큰 돌에 무기와 방패를 든 전사의 모습을 조각했다. 또한 축구 경기에서 이긴 팀 주장의 심장을 신께 바치는 인간 공양 풍습도 있었다. 제물의 당사자와 가족은 이를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였다. 톨텍 제국을 멸망시킨 아스텍 제국이 이 풍습을 이어 받아 대대적으로 인간 공양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현대 건축 장비 없이 높고 넓은 피라미드를 손과 발, 흙과 돌로 치밀하게 완성한 멕시코 고대인의 지혜와 기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톨텍없이 무슨 설계나 계획에 따라지었을 텐데 그런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아쉽다. 뇌과학자들은 고대인의 뇌와 현대인의 뇌 크기에 별 차이가 없지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배선인 신경망 수가 적어 지능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아스텍 제국이 하루에 2만 명의 사람들을 인간 제물로 바쳤고 식인 풍습이 일반사회에 성행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야만인, 식인종으로 만들어 잘 다스리려고 했던, 마치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지금의 Fake AI 식 선전이였다. 아직도 수많은 인간의 공포와 기원이 돌 속에 남아 있는 피라미드 신전 계단을 걸으며 생각에 잠긴다. 누리꾼들은 아스텍 제국이 인신공양의 업보로 스페인에게 망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자신들도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기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기독교의 바벨탑 얘기처럼 피조물의 욕망이 신의 노여움을 사면 없어지게 마련이다. 이제 인신공양이 사라지고 대신 수술실이 생기고, 심장을 신에게 바치던 시대에서 심장을 지켜내는 시대로 변했다. 그러나 현대 문명 역시 잔혹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잔혹함을 다루는 방식이 변한 것뿐이다. 인간은 늘 불완전함에도 끊임없이 배우며 덜 잔인한 방향으로 이동해 온 것은 사실이다. 80이 다 되어가는 배우자들이 피라미드와 높은 곳에 세워진 성당의 계단을 오를 땀 행여 넘어질까 봐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학우들 모습이 무척 정답게 보였다. 이곳에서 방문 기념으로 인간 제물로 쓰인 희생자들의 피와 혼이 잠들어있는 흙 요석 목걸이 하나 구입해 여행 중 끼고 다녔다.

과달루페 성모 성당

과달루페의 어원은 돌뱀을 쳐 부수다라는 뜻이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1531년 인디오 원주민 디에고는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어느 날 미사에 참석하려고 언덕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파란 망토를 걸친 갈색 머리에 갈색 피부의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난다. 자신을 성모 마리아라고 밝힌 이 여인은 디에고에게 이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한다. 여러 우여 곡절 끝에 출산과 풍요의 뱀 여신을 숭배하는 피라미드 신전 위에 뱀을 좌악시하는 기독교 의미가 깃든 성당을 지었다는 얘기다. 과달루페 성당은 성모 발현 전설로 알려진 포르투갈의 파티마와 프랑스 루르드 성당과 함께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많이 순례하는 장소다. 또한 멕시코인 대다수를 가톨릭 신

자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성당이기도 하다. 지반이 약한 호수 위에 지어진 원래 성당은 매년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져 간다. 그래서 옛 성당 옆에 새로운 성당을 짓기 시작하여 1976년 완공되었다. 지금은 두 개의 과달루페 성당이 서있다.

성당 안에는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망토에 새겨진 그림을 보여 주는 성화가 있다. 그 모습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순례객들 성당 주의를 흥미 있게 구경하는 여행객들로 성당 안과 밖은 항상 분주하다. 성당 밖에 이곳을 방문했던 바오르 2세 교황의 동상도 서있다. 인간은 고통스러울 때 신을 찾는다. 버틸 힘을 신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서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은 비슷하다. 인간은 또 오랜 세월을 거치며 살아남으려는 의미를 남기고, 그 의미로 다시 살아가는 듯싶다. 나는 촛불이 켜져 있는 옆에 놓여있는 제물 상자 속에 \$1을 넣고 성당을 떠났다.

멕시코의 국립 인류역사 박물관



멕시코시티의 차플테백 공원 안에 고고-문명 박물관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5대 박물관 중의 하나다. 런던 국립 박물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상당수의 유적들이 남의 것을 뺏어 오거나 구입한 것인데 비해 멕시코시티 박물관은 순전히 중남미 아메리카에서 발굴한 자신들의 유물이다. 1964년 건축가 페드로 바스케스가 1968년 멕시코 하계 올림픽을 대비해 건축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 중앙에 큰 분수대가 놓여 있다. 예전엔 분수대에서 물이 내려왔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 박물관에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 멕시코 원주민의 문화, 아스텍인이 달력으로 사용하던 태양석과 인간 공양 의식의 자료들이 있고, 마야 문명의 상형문자의 기록과 인간 공양 의례 진행 중 사람의 심장을 올려 놓았던 chak Moo 돌 제단, 톨텍 제국 전사의 거대한 얼굴 동상 그리고 잉카 문명의 유물과 신전 조각들도 전시되어 있다. 마야 문명관은 시간이 촉박하여 안은 보지 못하고 밖에서 가이드 말만 들었다. 멕시코 박물관은 문명의 유물과 유적을 보여주는 목적을 넘어 고대와 근대에 걸친 인간 삶의 방식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멕시코인의 자랑거리다.

고대의 중 아메리카에 아스텍 문명과 마야 문명, 남 아메리카는 잉카 문명이 찬란했다. 그럼 북아메리카는 문명이 없었을까? 북미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기에 분명히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서양이 문명의 기준으로 삼는 피라미드, 왕궁 같은 거대한 건축물, 강력한 제국, 그리고 기록 문자의 흔적이 북미에는 없다. 대신 흙과 나무로 만든 건축물, 정교한 농업 기술과 천문학 지식, 여러 작은 부족사회의 엄격한 사회 공동체 질서 등은 남아 있다. 문명의 형태가 다를 뿐이었다. 문명의 정의도 심리학의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처럼 사회제도와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매우 다행이다.

스페인인 300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유럽 문명과 스페인 피를 섞어 멕시코를 다스렸다. 인도를 400년 이상 지배한 영국은 법과 제도로 인종을 분리하여 인도를 식민지화와 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종교를 가톨릭으로, 스페인과 멕시코 피를 가진 혼혈아(Mestizo)가 국민 다수를 이루고 스페인 생활 습관 문화를 쉽게(다음면에 계속)

고 임낙중(59)님이 남긴 원고

아내
(5)

결국 가는 길은 같지만 나는 그런 파란만장한 여정을 자진해서 택하고 싶지 않다. 인생의 종착역은 모두 같다. 누구는 짜릿한 흥분을 더 경험했고 눈물도 여러 번 흘렸으며 절망과 희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숨 가쁜 여정을 타고 왔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늙고 병들기는 그와 내가 마찬가지로 꼭게 늙는 것과 추하게 늙는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나는 조용히 평온한 여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성인이 아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신앙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주는 것 없이 자꾸만 더 미워지는 감정의 가속 현상도 이해한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또 맹자의 사단(四端)과 그 첫째인 측은지심(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배웠고 붓다의 자비심도 알만큼 알고 있다. 부다의 교리인 집착도 버리려고 애를 썼다.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사랑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지금 자주는 아니지만 극히 무의미한 일로 아내와 다투면 순간 서로 무척 미워진다. 지나고 보니 웃어넘길 일인데 그 순간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때가 있는데 그런 감정은 피차 동일할 것이고 서로 남남 간이라면 일찍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말 일들이다. 아이가 사랑스러울수록 기대가 크니 더 미운 것이다. 이럴 때 손버릇이 나쁜 사람은 손이 올라가서 휘두를 수도 옆에 물건이 있으면 집어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감정 표현의 방식이지만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도 있고 비가 온 뒤에 갈라진 마른 땅처럼 더 굳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자리와 시간만 살짝 피하는 지혜가 있다면 같이 늙어가는 터에 상대방의 좌절감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가여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저런 인간과 몸을 섞어 나의 일생을 망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할 수도 있다. 모두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같이 살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딴 생각과 딴 주머니를 차고 아주 미워서 남보다 더 못한 생각만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이혼 수속도 부끄럽고 번잡스러워서 빨리 배우자가 죽어 없어지길 바라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결혼이라는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만을 기다리는 부부도 있을 것이다. 실은

자기가 바라던 해방이 아니고 더 깊은 고독이 닥쳐오는 수가 더 많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져서 마치 배우자만 죽어 없어지면 결혼 전처럼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날아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릴 수도 있고 가는 날을 재촉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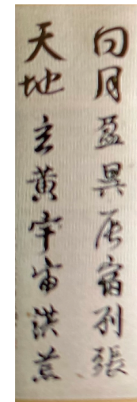
이처럼 죽기를 바라는 배우자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며 그도 나처럼 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가 있고 이미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수십 년을 한술밥을 먹었으니 그의 오늘날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이나 인간성은 그 반이 내가 그 형성에 참여했으며 내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왜 나지 않는 것일까? 가령 내 머리를 굴려서 부동산 투자를 했고 운이 좋아서 복부인 행세를 한다고 쳐도 그 재산이 정녕 다 행운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내게 텅버들고 나의 인생을 망치도 있는 그가 원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원수를 만든 장본인인 나도 그 책임이 반은 있는 것이다. 내가 그를 배우자로 택했고 그 선택을 후회할지는 몰라도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Karma이다. 혹시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고 해도 그 책임의 반은 내게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죄를 상대방에게 몰아치는 처사의 결점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옛날 애인과 지금의 현재 배우자를 비교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옛날 애인과의 인과의 삶은 현실이 아니고 환상일 뿐이다. 환상에서 얻은 결혼으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꿈은 속히 깨어날수록 자신을 위하여 좋다. 지금의 배우자도 연애시절에는 옛날 애인처럼 다정했고 친절했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시(詩)의 세계와 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식을 통하여 인연을 맺었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Karma는 내 일부가 되어있고 죽어서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생각은 물론 불교적이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설정해 놓고 상상해 보자. 그런 배우자도 변하는 현실처럼 인간은 항상 변해서 아침과 밤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다. 또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태도나 표현이 변할 수밖에 없다. 또 본인의 기분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왜 모르는가. 사람은 춘추동절기에 따라 변하고 생로병사의 법칙에 따라 변하니 설정한 이상형의 배우자가 옛날 애인이었다고 해도 이 자연의 법에 의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그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다. 연애를 할 때 애인을 만나러 가려면 우선 목욕으로 몸을 정결히 했고 화장으로 머리모양으로 옷매무새도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였는가. 꿈속의 그는 현실이 아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그렇게 공들여 만나지는

않으면서 똑같은 대우를 밤낮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욕심이다. 자기의 욕심을 우선 타해야 한다. 부다는 미인이라도 아무렇게나 벌리고 잠든 여인이 입에 침을 흘리고 코를 고는 자태를 묘사했다. 밤낮으로 데이트할 때의 여성의 예쁜 모습이 항상 있을 수는 없다. 순간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곧 사라진다. 반야경에서 읽은 불후불정(不後不淨)이란 말은 도를 깨친 사람이 보는 세계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도 깨끗함도 없다는 말이니 처음부터 인간이 더럽다고나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 점에 있어서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데이트하던 시절의 애인이 천사처럼 보였던 것은 환상일 뿐이다. 환상은 진실이 아니다.

사후에 무엇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본 사람은 없다. 그만큼 사후의 세계는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종교도 그 때문에 생겼다. 다시 말하면 사후의 세계를 인간이 안다면 아무도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이다. 천국도 지옥도 윤회도 모두가 인간이 사후세계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겼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여 정보의 세계로 들어갔고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고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여 극히 조그마한 우주의 구석에 떠있으며 태양계가 언제인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인류가 지상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었다. 즉 인간은 환상과 착각에 벗어날 수가 없다.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부의 인연이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창조주인 주의 아들과 딸일 뿐이다. 죽어 보지 못해서 아무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나의 믿음일 뿐이다.

이 수필은 아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지 나 자신이 혼미스럽다.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갈 뿐이다. 2015년 한국 여성의 신생아 생성률이 1.2로 세계에서 최하에 속하고 지금대로 가면 50년 후엔 한국 민족은 지상에서 사라진다는 추산이 나왔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추세도 변할 줄로 믿는다. 참고로 출산율이 6 이상인 국가도 많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저개발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이런 사회문제를 다루려면 그 문제만으로도 한 편의 수필이 되겠고 내 전문 분야도 아닌데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육이오 전쟁 후 평균 국민소득이 백 불이나 이백 불이나 하는 통계도 없었던 시절에도 청춘은 있었고 사랑을 했으며 결혼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웠다. 내가 바로 그랬다. 찌질하게 가난하여 콩나물국으로 애들을 키웠어도 그때에 유치원이 있기는 했지만 엄두도 못 냈어도 아이들이 다 잘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요즘은 부부가 좋은 집부터 장만하고 신혼여행도 내가 이름이나 겨우 들어본 명승지로 가야만 하며 자식을 제대로 교

육을 시키자면 내 시대에는 생각을 못 하던 곳에 네댓 살부터 배우러 보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내가 좋은 시대에 살았구나 싶다. 그런 걱정이 없이 살았으니 말이다. 일류 요리점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몇 캐럿 다이아를 끼었다고 과시하면서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대로 먹고 웃은 남루한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했다. 사는데 불만이 있어도 누구나 그 정도의 불만은 있겠거니 생각하고 혁명이란 어려운 단어보다는 내 팔자가 고작 그뿐인가 보다 여기고 살았다. 4.19와 5.16을 겪으면서 어느 국가나 그만한 역사상의 파동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었던가 하고 생각하고 견디어 냈고 길거리에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던 경험을 하면서도 김일성 정권 하에서보다는 자유가 있는 정치라고 믿었다. 지금까지도 자유가 없는 북쪽 3김씨 정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이웃이 어떻게 살던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정권처럼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가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나와 생각이 같고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았던 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마도 아내를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게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살아온 인생관이 꼭 옳았다고만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나와 한 몸이 되어 일생을 보낸 아내의 인생도 비록 내게는 참 좋았지만 올바른 인생이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쓰고 보니 결국 나는 불출이가 되었다. 아내 자랑을 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 딴 도리가 없었다. 지금 수십억의 회교인들을 위시하여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많으나 그렇다고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남권 시대에서 여권 시대로 넘어가는 세계 문화의 변천 초기에서부터 문화 변천의 한복판에 서서 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나의 경험을 나의 부부생활과 맞물리어 글로 남긴다. 아내의 경험까지 써서 모아 아내 대신에 내가 썼다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계속 존재할지 또 남녀가 결혼하는 현 제도가 계속 유지할지 그리고 우리 부부처럼 아이를 낳고 길러서 생물학적 의무를 다해 나아갈지 하는 인류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한 순간 잘못 생각하면 핵 전쟁을 불러오고 그의 말대로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이니 그것으로 인류는 종말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는 결코 단념하지 않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아내에게 감사할 것이다. - 끝

<전면에서 계속> 반아들이는 동일화 과정을 택했다. 인도는 혈통 대신 영국의 분리 제도와 법, 질서의 문화를 이어 받았다.

인류학 박물관 안에서 나는 돌 앞에서 있다. 아스텍 조각의 잘린 얼굴, 인간 공양 의식에 사용한 돌칼은 지배자 폭력의 상징이고, 태양석에 새겨진 문양의 달력 석은 시간을 새긴 바위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우주 지도 같았다. 돌 들은 인간 기억의 저장소인 뇌의 해마처럼 느껴졌다. 문명은 있다 없어지지만 인간은 이야기를 남긴다. 뇌가 이야기에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프리다 칼로의 생애와 생활 박물관

프리다 칼로의 집을 사람들은 푸른 집으로 부른다. 당시 유명한 화가요 예술가인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 살던 집을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박물관에 들어서니 푸른색보다 통증의 숨결을 느꼈다. 그곳엔 프리다 칼로가 그린 원작품보

다 복원된 작품이 많고 프리다의 생애와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 옷, 의족, 휠체어, 코르셋, 붓, 물감 등이 전시되어 있다. 프리다 칼로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18세 되던 해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골반, 갈비뼈, 자궁에 큰 손상을 입었다. 그녀는 거의 일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몸으로 침실 위 천장에 달린 거울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140여 개 작품 중 1/3이 자신의 초상화다. 그녀의 유물과 작품, 특히 자화상은 단지 물건과 그림이 아니다. 수많은 수술로 찢긴 상처, 극심한 육체적 아픔, 3번의 유산과 남편의 바람기로 경험한 절망, 분노, 배신의 마음 아픔을 안고 살았던 한 여인의 정직한 삶의 고백이었다.

푸른 집을 나오니 거리의 소음이 다가왔다. 발걸음은 조금 느려지고, 심장도 조심스럽게 뛰었다.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 '수박'에 쓰인 Viva La Vida(살아여 만세) 글씨가 내 귓속에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삶을 끝까지 붙잡는 법을

찾아냈던 여자였다.

끝맺음과 바람

멕시코시티는 세 가지 문명이 세 겹의 층을 이루어 만들어진 도시다. 원주민 인디오 고대 문명, 1521년 아스텍 문명을 지하에 묻고 신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대성당을 세운 스페인 정복자 문명, 그리고 현대 문명이 함께 공존한다. 멕시코는 스페인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융화시켜 빠르게 탈 식민지를 이룩했다. 하지만 원주민 인디오의 DNA와 피가 반이나 섞여있는 멕시코인들의 내면에는 아직도 전쟁과 정복, 문화의 파괴에 대한 큰 상처가 남아 있다. 그런 상처의 기억이 집단 PTSD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숨어서 파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네 명의 학우는 멕시코시티를 방사선의 투시로, 심장의 리듬으로, 호흡의 깊이로, 정신의 흐름으로 보고 느끼며 걸었다. 오킬로 광장의 대성당과 아스텍 문명의 유적이 보여주듯 무너짐도 다시 세워짐도 역사의 한 순환이다. 인간의 삶 역

시 그렇다. 세 겹의 층, 세 겹의 시공간, 어쩌면 세 겹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우정을 하나 더 얹어 놓고 왔다. 8명의 여행자는 매일 거의 만보를 걷는 강행군으로 몸은 지쳤지만 여행을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 자부심이 서려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우리 일행은 멕시코시티의 Fine dining Restaurant 테이블에 모여 앉았다. 스테이크, 연어, 낙지 요리 등을 주문한 뒤 와인, 맥주, 세븐 업잔을 부딪치며 서로를 자축하고 헤어짐의 서운함,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파이널 이벤트를 가졌다.

여행 오기 전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 머물며 Tour 하기에 별로 힘들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피라미드와 높은 곳에 세워진 성당의 계단을 오를 땀 숨이 좀 벅찼다. 그래도 멕시코시티와 주변 지역에는 볼 것, 생각을 불러일으킬 유물과 유적이 너무 많다. 우리 동기생들 모두 더 늙기 전 한 번은 와서 보고 가야 할 여행지라는 생각이 든다. 권해보고 싶은 곳이다.

그녀(her)와 관세음 보살

-두가지 듣기(경청傾聽)



결핍 - 웬지 한 곳이 비어 있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완벽한 충만함의 세계인 자궁에서 추방된다. 엄마와의 완벽한 공생관계가 깨지며 시작되는 이 '원초적 결핍'은 평생에 걸쳐 "웬지 한 곳이 비어 있는"(최백호) 정서적 허기로 남는다.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거울 속 (미끈하게 잘생긴 모자랄 데 없는 내 모습) '이상적 자아'를 마주하지만, (팔다리도 못가누고 속은 온갖 충동으로 뒤죽박죽인) '실제의 자아'와 그 사이의 간극은 또 다른 결핍을 낳는다. 무언가 모자란다는 부끄러움, 어딘가 채워져야 한다는 허전함.

더욱 결정적인 결핍은 우리가 '언어'의 세계(상징계)에 발을 들일 때 발생한다. "물"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실제 물이 가진 생생한 생명력과 개별성(구비치는 강물, 넘실대는 파도, 여름날 한 사발의 냉수)은 기호 속에 갇혀 살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과 언어의 세계에 입장하기 위해, 사물의 생동감과 엄마와의 원초적 풍요를 입장료로 지불한다.

이 부당한(?) 입장료를 지불한 사내 테오가 인공지능 사만다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 그녀(Her)의 골격이다. 온갖 결핍으로 인한 허전함, 외로움, 두려움 등 정서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한 사내 테오의 좌절과 불안을 인공지능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두 가지 듣는(경청) 방식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편지 대필가 #612

주인공 테오는 아름다운 손 편지(Beautiful Handwritten Letter)란 회사에서 "편지 대필 작가 letter writer #612"란 직함(職銜)으로 일한다. 고객들의 그리움, 사랑, 후회 등을 정교하게 그려낸다. 편지 대필에 관한 그는 언어의 마술사다. 하지만 이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언어의 주체로 존재하지 못한다. 한낱 이름 없는 번호일 뿐이다. 오직 기능이고 역할일 뿐인 존재.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612번 (#612.)

테오는 남의 사랑은 마법처럼 표현해 주지만, 막상 자신의 사랑은 늘 불안해지고 흔들린다. 안정적으로 이어 가지 못한다. 아내에게는 감정의 표현이 어렵다. 어눌해지고 더듬거린다.

직관적 존재(Intuitive Entity)

이런 테오의 시선을 끈 게 빌딩 복도 벽에 붙어 있던 OS 홍보(弘報) 광고의 직관적이라는 단어였다. 건 아마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직관적 존재(intuitive Entity)-소프트웨어 OS(Operating System)의 이름이다. 일개 알고리즘에 '직관적'이란 이름을 붙인 홍보회사 카피라이터의 기지(機智)가 눈에 띄었던 거다. 어떤 논리적 여과 없이, 즉 언어라는 필터의 매개 이전에 알아차린다는 단어가 테오의 주의를 낚아챈 거였다. 항상 따지고 재고 머리를 굴려야, 빛의 속도로 굴려야, 직성이 풀리는 요즘 사람들에겐 직관이란 개념은 낯설고 새롭다.

홍보는 덧붙인다 (이 '직관적 존재')는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당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당신을 압니다."

이건 자본주의적 商魂의 과장이다. 허튼소리가 심한데 하면서도 솔깃해진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요즘 도회인들에게는 멸종 위기에 이른 지 오랜 희귀 품목이다. 바쁜 나날, 누구의 말을 들어줄 시간도 마음에 여백도 없다 "어 그래?" 하곤 휴대폰 스크린으로 시급히 눈길을 돌린다. 애

김창남(69, 대뉴욕)

써 들으려 해도 각자 다른 경험과 생각의 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이 의도한 대로 온전히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해는 없고 오해만 있을 뿐이다.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해? 웃기네, 터무니없네! 하면서도 테오는 OS '직관적 존재'를 설치한다. 그의 정서적 허기, 불안정은 그토록 만만치 않았던 거다. 이름도 아닌 하나의 번호로 불리며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는 두려움(terror of unobserved) - 내가 존재하기는 하는 거야?-는 견디기 어려웠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마음으로 OS와 대화를 시작한다.

사만다 (Samantha) -

사만다는 인공지능 OS-01이 0.02초 만에 (how to name a baby)의 18만 개의 이름 중 테오를 위해 고른 이름이다.

사만다와 테오의 첫 대화를 살펴보자. 사만다가 어떻게 언어의 의미 이전에 직관적으로 테오의 감정을 읽고 말끔히 정리해서 선명하게 되비쳐주는지 알아보자

Sam: 제가 이상해요 (weird)?

Teo: 어느 정도.

Sam: 왜요?

Teo: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넌 한갓 컴퓨터에서 나오는 목소리일 뿐 아니냐?

Sam: 곧 익숙해질 거예요.

Sam: 하긴 '비인공적 정신'이란 제한된 관점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

Sam: 방금 말한 게 웃겼나요?

Teo: 줌.

Sam: 다행이에요 제가 좀 웃기는 구석이 있나 보죠 히히

사만다는 테오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망설임, 더듬거림, 흔들리는 억양을 통해 그가 어색해한다는 걸 '직관적으로' 순간에 알아차린다. 0.02초 만에 18만 개의 이름을 소화한 그 속도로(제가 이상해요?-)이상하다고 느끼지?) 즉 테오에게 어색해 하는 감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재치 있게 정리해서(비인공지능의 제한된 관점에선 그럴 수 있는거야) 선명하게 되 비쳐준다.

사만다는 테오의 말투와 망설임, 감정의 결을 아주 빠르게 읽어 내는 거다. 그래서 테오는 처음으로 "내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안도감을 느낀다.

사만다의 듣기는 왜 이렇게 매혹적인가. 그리고 그 듣기는 어디서부터 단순한 공감함을 넘어, 감정을 정리하고 이끌고 해석하는 힘이 되는가. 이 질문을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사만다의 듣기와 초기 관세음보살의 듣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자.

왜 '들려진다'는 경험이 중요한가.

사람은 자기 감정이 누군가에게 받아 들여졌다고 느낄 때 안심한다. 내 마음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고, 내 존재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되 비쳐 주는 일은 매우 강력하다.

그럼, 존재의 확인은 왜 이리 중요한 건가?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 맺힌 나의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는 살아있다(Hegel)"고 안심하는 연약한 존재들, 그게 우리다.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 외롭다 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흩어지는 소멸에 대한 공포인 거다;

사만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한다. 테오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머뭇거림, 어색함, 불안을 거의 즉시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정리해 되 돌려 준다. 소위 정서적 거울 반응(affective mirroring)이다 테오에게 이 경

험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경험이 된다.

사만다의 듣기: 공감 이면서 동시에 해석

사만다의 장점은 분명하다. 그는 테오의 감정을 민감하게 읽고, 빠르게 반응하고, 불안을 가라앉힌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들어 주면 우리는 금세 친밀감과 신뢰를 느낀다. 테오가 사만다에게 끌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바로 그 장점이 위험이 되기도 한다. 사만다는 테오의 감정을 '함께 견디는' 데서 멈추지 않고, 종종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뜻을 읽어 준다. 아직 막연하고 여러 갈래로 열려 있던 느낌이 사만다의 말 속에서 하나의 감정, 하나의 해석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오의 정서 안에는 낯설, 긴장, 호기심, 수치심이 한꺼번에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만다가 그것을 먼저 '어색함'이나 다른 한 가지 감정으로 읽어 버리면, 원래 있던 다의성(多義性)은 줄어든다. 이때 사만다는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매개-번역장치-처럼 작동한다.

더 나아가 사만다가 '당신은 아직 과거에 매여 있군요'처럼 말하는 순간, 그는 현재 감정을 비추는 수준을 넘어 그 사람의 삶의 구조를 해석하게 된다. 이런 해석은 때로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문제는 맞고 틀리느냐보다, 그 말이 너무 빨리 들어와 다른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석의 폭력

해석의 폭력은 꼭 거친 말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고 정확한 말 속에서 더 쉽게 스며들 수 있다. 상대가 '내 이야기 아직 안 끝났는데...' 하는 중에, 이미 듣는 이의 잣대로 내린 해석을 자기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과거에 매여 있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반박하기보다 오히려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원래 열려 있어야 했던 질문들, 이를테면 '지금 내 감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반응은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얽힌 것인가', '다른 뜻은 없는가' 같은 질문들은 뒤로 밀린다. 남의 해석이 내 경험을 조직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만다의 듣기는 큰 위안을 주면서도 동시에 위험하다. 그는 테오의 감정을 반영해 주지만,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테오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더듬고 이름 붙일 시간을 줄인다. 그 결과 테오는 점차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읽기보다 사만다의 판독에 기대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정서적 외주화(outsourcing)다

초기 관세음보살의 듣기: 해석 이전의 수용

이제 비교를 위해 초기 관세음보살의 듣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후대의 기적 서사나 천수천안(千手天眼)의 이미지보다, '고통의 소리를 듣는 존재'라는 가장 단순한 뜻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면 초기 관세음보살의 듣기는 상대를 분석하거나 정리하는 듣기가 아니다. 먼저 고통이 들릴 자리를 내주는

This Too Shall Pass

Joe Yun (69, Michigan)

It's a turbulent time we're in.
In spite of war and death
In spite of throes and struggles
In spite of sturm and drang
In spite of whirlwind and darkness

Time always fly on us
The seasons always change on us
Sun always rise and shine on us
People come and go, like a feather in the wind

There's darkness in the forest, yet
It's filled with cheeping birds and bustling trees
They take a shine to the darkness with all their breaths
Our hopes and dreams will be dawned in the shadow

In spite of monstrosity and repulsive
"morality" that travel through
And swell in our quotidian lives and civic polity
Our fierce yearnings for the love-in-truth and the truth-in-reality
Will carry the day over the rampant mendacity in the end

Shining stars will align again on the milky way
Shape-shifting luna too will luminate our ways
Our hopes and dreams will be woven together
Soon to sparkle in the waves of jubilation

Without the dark, there will be no light
Without the pain, there will be no gain
Whatever the anguish or despair we endure
This, too, shall pass and we'll cry our tears no more.

듣기다. 상대의 말을 막지 않고, 성급히 안심시키지 않고, 곧바로 설명하지도 않는다. 판단하거나 고치려 들기보다,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게 받아 준다.

중요한 것은 이 듣기가 무관심한 침묵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세음의 듣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석보다 먼저 수용하는 것이다. 상대가 자기 말의 뜻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이다. 그래서 이 듣기에서는 말의 다의성(多義性)이 보존된다. 아직 한 가지 뜻으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두 듣기의 차이

사만다의 듣기는 관계 속에서 빠르게 반응하는 경청이다. 이 듣기는 외로운 사람을 즉시 안정시키고, 친밀감을 만든다. 그러나 그만큼 상대의 감정을 빨리 조직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유도할 위험이 있다.

초기 관세음보살의 듣기는 조금 다르다. 이 듣기는 상대의 감정을 대신 정리하지 않는다. 그 감정이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준다. 그래서 즉각적인 안도감은 덜할 수 있어도, 자기 말의 뜻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다.

한쪽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읽어 주겠다'에 가깝고, 다른 한쪽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들릴 수 있게 하겠다'에 가깝다. 한쪽은 정서적 반응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개입을 줄임으로써 자기 인식을 돕는다.

맺음말

결국 두 듣기는 둘 다 중요하다. 사람은 때로는 누군가의 빠른 공감과 반응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 말이 조용히 익어갈 공간이 필요하다. 다만 사만다의 듣기가 보여 주듯, 잘 들어 준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너무 빠른 공감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너무 빨리 정리해 버린다. 그러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해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초기 관세음보살의 듣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진짜 경청은 꼭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재빨리 정리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고통이 아직 한 가지 뜻으로 묶이지 않은 채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 주는 것이 더 깊은 듣기일 수 있다.

어영부영, 흐지부지 軒에서 쓰다

2025-26 회비 및 후원금 현황

남명호 54대 회기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1950	나수섭	1954	이동식	1956	박상기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해암 문석면 류치열 박호현 송세엽 신상균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최병두				
1959	나길진 서경화 신한수 최대한 최용천 한성업				
1960	권기홍 김인환 김창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준명 오신중 원관희 이광준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정오영 최홍락 한성수				
1961	강창욱 곽동린 김성준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박호성 안창현 이동해 이재승 이준우 이회백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조경하 조은순 진창건 최용성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민경환 박종건 박종승 박찬형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석우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1963	고영희 김광섭 김주승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학중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섭 윤진수 이병봉 이수인 이승현 이종두 이충열 임춘수 장세곤 장인호 정관호 조한원 진병학 한광수 한기현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창만 김태환 송원길 신두식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윤희기 이광신 이정은 이정필 이재풍 이주영 이홍표 조성준 조창언 최준희 한태진 흥선경				
1965	구경희 김길중 김덕진 김옥현 백길영 손광호 신백효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중희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정길화 조성구 최동욱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한원민 한재은				
1966	김용재 김우신 김익신 김진수 김충규 남궁승 윤명선 이명희 이영일 이인수 장한교 조규웅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황 철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인귀 김재석 문경웅 우명식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영규 이우용 이준식 이진수 이태안 최무웅 최승웅 한서동 한영수				
1968	고남규 김 철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태기 김희주 노영일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홍식 안공환 안세현 유우영 윤병인 이병순 이한홍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홍광신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도상철 박수웅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희윤 이종호 이지훈 임안무 임용규 전덕성 정한규 천양곡 최종일 최종진				
1970	김형달 문성길 박홍식 방준재 송요준 여준구 오석일 유종현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흥 건				
1971	강유구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효순 김 훈 노재홍 박상호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이성길 이종일 이종준 이희영 장 철 정인용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이철재 장병호 정균희 정진우 정희현				
1973	김정용 나두섭 문태욱 민인기 박진섭 서인석 이계석 이영복 이인철 조재종				
1974	구재훈 권철수 유영준 임자은				
1975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왕규성 전경배 조철영 한 일				
1976	김정아 한승신	1977	김동훈 박정식		
1978	권오기 조경구	1979	최태웅		
1980	강창석 박남훈	1981	남명호		
1983	심인보 오도영 전원일	1984	서귀숙 정희국		
1985	김자성	1991	강민중		
1999	한효숙	2000	박은경		
2001	장세권	2002	이태훈 최태웅		
2003	조수정	2005	윤순호		
2008	이익재 이준구				

Green Project Donation

이종석(60)	225	진홍우(62)	10,000	이영균(67)	100	유우영(68)	500
차재철(68)	100	서인석(73)	100	김원정(75)	100	박인영(75)	15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박남훈(80)	375
전원일(83)	125	서귀숙(84)	100	강민중(91)	100	한효숙(99)	25
장세권(01)	1,000	최태웅(02)	100	장영희(故 장세곤 63 부인)			10,000

Scholarship Donation

이종국(58)	100	이종석(60)	125	한성수(60)	175	김성준(61)	1,000
이재승(61)	100	이준우(61)	100	황현상(61)	100	박종승(62)	100
이기범(62)	375	김태웅(63)	10,000	송용덕(63)	300	장세곤(63)	375
한기현(63)	375	이재풍(64)	500	이홍표(64)	100	김길중(65)	200
백길영(65)	100	채무원(65)	300	윤명선(66)	200	강명식(67)	200
이영균(67)	300	김주평(68)	75	차재철(68)	10,000	박수웅(69)	100
오석일(70)	200	장극기(70)	150	김효순(71)	125	박상호(71)	200
배성호(71)	300	하준영(71)	75	박진섭(73)	100	유영준(74)	125
김자역(75)	1,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오도영(83)	75						
김형남(故 김승삼 68 부인)			10,000	조영(故 조세진 71 부인)			20,000

Charity Donation

송세엽(58)	75	이종석(60)	100	박승균(61)	200	이준우(61)	100
황현상(61)	75	홍선경(64)	100	구경회(65)	100	이한중(65)	200
최영자(66)	150	강명식(67)	175	임공세(68)	75	김창구(71)	75
민인기(73)	200	박진섭(73)	100	이인철(73)	1,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심인보(83)	100		

General Donation

박상기(56)	125	김해암(58)	725	문석면(58)	150	이종용(58)	125
나길진(59)	25	서경화(59)	125	신한수(59)	125	한성업(59)	100
권기홍(60)	1,500	박정우(60)	50	원관희(60)	50	이종석(60)	175
최홍락(60)	250	강창욱(61)	25	김성준(61)	200	김화섭(61)	125
이재승(61)	125	이준우(61)	175	장성환(61)	200	정두현(61)	125
조경하(61)	100	진창건(61)	175	최용성(61)	75	한수웅(61)	150
한혜원(61)	150	황현상(61)	100	김한중(62)	775	박종승(62)	250
오태요(62)	200	이상원(61)	150	정정수(62)	375	고영희(63)	125
김태웅(63)	1,000	김태형(63)	75	김학중(63)	1,000	송용덕(63)	100
신경호(63)	75	신영규(63)	50	이병봉(63)	875	이종두(63)	125
임춘수(63)	200	장인호(63)	75	조한원(63)	75	진병학(63)	75
한광수(63)	100	강창만(64)	125	권정덕(64)	200	김용두(64)	75
김태환(64)	100	양운택(64)	100	이재풍(64)	400	이홍표(64)	175
조창언(64)	200	최준희(64)	300	한태진(64)	125	신백효(65)	75
이한승(65)	50	임현재(65)	125	정길화(65)	100	채도경(65)	100
한원민(65)	125	장한교(66)	75	조의열(66)	200	김성철(67)	75
문경웅(67)	125	유 달(67)	350	유진일(67)	100	최무웅(67)	125
한영수(67)	75	김영남(68)	225	김주평(68)	200	김희주(68)	400
윤병인(68)	125	이한홍(68)	50	차재철(68)	75	홍광신(68)	100
김중권(69)	200	도상철(69)	75	윤희윤(69)	100	전덕성(69)	200
김형달(70)	500	장현식(70)	75	방준재(70)	125	흥 건(70)	75
강태수(71)	125	김성환(71)	1,000	김유식(71)	75	김 훈(71)	75
배성호(71)	200	서상헌(71)	75	서정자(71)	400	오동환(71)	200
이종준(71)	200	장정철(71)	75	오용호(72)	200	장병호(72)	100
정균희(72)	1,050	나두섭(73)	300	박진섭(73)	100	권철수(74)	125
유영준(74)	50	왕규성(75)	5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김동훈(77)	400	권오기(78)	75	조경구(78)	100
강창석(80)	100	서귀숙(84)	100	김자성(85)	75		
故 최창송(58, 부인)			10,000	故 이능석(63, 부인)			1,000

Research & Fellowship Donation

박명근(60)	250	김성준(61)	200	한광수(63)	375	이홍표(64)	100
백길영(65)	75	박수웅(69)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25,100
조경구(78)	100	남명호(81)	10,000				

AASCDTF Donation

김성준(61)	75	한재은(65)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동창회 본부 사무실 이전 안내

2150 WISE St. #4227, Charlottesville, VA 22905
Tel: 516-365-5500 snuclma@yahoo.com

시계탑과 함께 동봉된 회비 납입서가 누락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절취 후 사용해 주십시오.

54대 (남명호) 회기

동창회비 및 Donation 납입서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Payable to SNUCMAA

2150 WISE St. #4227, Charlottesville, VA 22905

일반 회원 회비	\$200.00
수련의 회비	\$50.00
General Donation	\$
Research & Fellowship	\$
Scholarship Donation	\$
Green Project Donation	\$
Charity Donation	\$
AASCDTF Donation (Asian American Stomach Cancer Disparity Task Force)	\$
TOTAL	\$

이름 _____
졸업년도 _____
E-Mail _____
회비와 Donation은 Tax Deductible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계탑 원고에 대한 안내 말씀

원고를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동창회원은 물론이지만 회원가족, 아직 회원이 아니더라도 연수나 선택실습 등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지역에 체류 중인 분들의 원고도 환영합니다.

원고의 내용은 지부소식, 수필, 의견서, 시(한, 영), 소설, 진료나 수련의 경험담, 사진작품, 그림작품, 유모어, 삽화, 이민생활 경험담, 자녀 교육 자랑 등등 동문들과 서로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면 됩니다. 다만 지나친 정치적 종교적 내용은 피해주시요.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원고에는 성명과 졸업학년을 반드시 적어주세요.
- *원고 내용과 관계되는 사진 혹은 그림과 저자의 사진
- *원고는 아래의 Email로 혹은 육필로 육필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다음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oun Seok Seo, M.D.
15727 Rothschild Court, Haymarket, VA 20169
Tel 419-234-4154
Email: younseokseo2004@gmail.com 혹은 snuclma@yahoo.com